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마지막 은신처

(THE LAST SAFE HOUSE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朴 炤 炯

2015年 7月



# 마지막 은신처

(THE LAST SAFE HOUSE 翻譯論文)

指導教授 김 원 보

朴 炤 炯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7月

朴炤炯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5年 7月



# 마지막 은신처

지하철도 이야기





## 목차

소개 .....	8
한밤중의 손님 .....	11
엘리자의 이야기 .....	29
벤의 탈출 .....	53
아웃사이드 .....	73
노예추적자! .....	89
친구들 .....	107
6개월 후 .....	117





## 소개

이 소설은 1856년 서로를 알게 된 두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국 남부에 살던 잭슨의 가족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탈출하는 중이었다. 레이드 가족은 캐나다 서부 세인트캐서린즈(지금의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수백 명의 노예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이 캐나다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

이 소설은 또한 자유를 찾아 밤에 북부로 도망치는 노예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비밀 조직망인 지하철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하철도는 도망노예들이 이용했던 탈출경로로 엄격히 비밀로 부쳐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전해질 뿐이다.

지하철도는 18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865년 까지 존재했다. 이 소설은 탈출하는 한 노예 가족의 허구적 이야기와 많은 도망노예들과 지하철도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레이드 가족과 잭슨가족은 허구의 인물들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으로 옮겼던 캐나다인과 미국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 한밤중의 손님



요한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잠을 깨운 소리를 찾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창 밖에서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느릅나무 소리만 들릴 뿐 집 안은 고요했다. 요한나는 거칠게 심호흡을 했다. 악몽. 그저 악몽을 꿨을 뿐이었다.

“안돼! 안돼! 그러지마.... 도와줘요!”

요한나는 허리를 꼴뚜기 세워 앉았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애써 엄마를 불러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복도 건너편 침실에서 성냥이 켜지더니 초에 불이 켜졌다.

“엄마!”

요한나는 또 다시 엄마를 불렀지만 불빛에 비친 엄마의 그림자가 벽에 잠시 나타나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다. 방은 다시 어두워졌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인가?

그 때 아빠가 복도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모습에 요한나는 용기가 생겼다. 방에서 나와 잼싸게 아빠를 따라갔다. 작은 촛불이 재봉틀이 있는 방 문 앞에 서있는 아빠와 오빠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녀가 살그머니 다가가 아빠와 오빠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자 아빠가 팔을 뻗어 요한나를 잡아당겼다.

“엄마...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엄마를 찾는 애절한 소리가 전율을 느끼게 하는 흐느낌 소리에 묻혔다

방 한쪽에 놓여있는 침대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이지?”

요한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지금...”

오빠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빠의 말을 막았다.

“침실로 돌아가거라. 엄마가 해결할거다.”

요한나는 아빠의 허리춤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방안에 누가 있어요?”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요한나의 등을 떠밀었다. 오빠는 이미 자기 방으로 가고 없었다. 오빠는 모두 알고 있는 걸까?

“아침이 되면 말해주마.”

이번에는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다.

“가서 자거라.”

자라고? 잠이 오겠어? 따뜻한 7월의 밤이었지만 요한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침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두려워할 것 없어. 진정하자. 하지만 눈을 감은 요한나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찼다.

왜 나에게는 말해주지 않는 걸까? 집에는 자주 손님들이 찾아왔었는데, 요한나는 언제나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대개는 그들을 위하여 잠자리를 정돈하고 방을 청소했었다. 뭐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다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요한나가 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면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하던 말을 멈춰버렸다. 오늘 오후 가게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덜컹거리며 지나가던 마차가 그녀 옆에 잠시 멈춰 섰다. 마부는 마차에서 상체를 구부렸다.

“이 전보를 아빠에게 갖다 주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소포는 내일 저녁 기차로 도착할거다.”

요한나는 마부가 토론토에서 보낸 소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메시지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요한나는 먼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깬 요한나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아팠다. 밝은 태양 빛에 간밤에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지자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오빠는 아는데 왜 나한테만 말해주지 않는 거야? 나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데.

요한나는 잠옷을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정리한 뒤 복도를 따라 재봉틀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아주 조용했다.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조그마한 체구의 사람이 작은 침대 가운데에 몸을 구부려 누워 있었다. 요한나가 나가려고 하는데 한숨소리가 들렸다.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이 몸을 돌리자 이불 끝이 획 뒤 집혔다. 요한나는 숨이 턱 막혔다. 눈물로 얼룩진 검은 얼굴이었다.

이 여자애는 누구일까?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요한나는 아빠의 손님들을 떠올렸다. 분명 그 중에는 흑인도 있었다. 세인트캐사린즈로 도망온 노예들이었다. 이 여자아이도 그들 중 한명일까?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온 걸까?

눈을 뜬 소녀는 놀랐는지 눈이 동그해졌다. 재빨리 침대 머리맡으로 가더니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인형을 안고 있었다. 내 인형! 요한나는 인형을 뺏으려다 말았다. 눈치를 챘는지 그 여자 아이는 인형을 이불위에 내려놓고는 벽에 더 바짝 붙어 앉았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요한나가 문 쪽으로 돌아봤지만 엄마는 그녀를 그냥 지나쳤다.

“괜찮아, 엘리자.”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듯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요한나란다.”

엄마가 토닥이자 그 아이는 마른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요한나를 향해 돌아섰다.

“엘리자가 몹시 놀란 것 같구나.”

엄마가 말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라.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설명해줄게.”

엄마는 엘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단다. 다 잘 될 거야.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올 테니 좀 쉬고 있으렴.”



“저 여자에 노예죠?” 부엌에 내려온 요한나가 투명스럽게 물었다.

“탈출한 노예란다.”

엄마는 요한나의 말을 바로 잡았다.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캐나다에 왔잖아요. 이곳에서는 모두 자유예요. 오린 브라운씨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배에서 내렸을 때 캐나다 땅에 입을 맞췄다고 말했어요.”

“그가 왔을 때와 지금은 다르단다. 노예추적자들은 이제 뻔뻔스럽게 국경을 넘어 오고 있어. 그들이 지난주에 윈저 시내에서 도망노예를 잡아가던 모습을 기억하지? 백주대낮에 그를 배로 끌고 갔잖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엄마는 렌지에 불을 켜고 큰 프라이팬을 올리며 말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렴. 곧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요한나가 슬라이스 햄을 굽고, 죽을 그릇에 떠 담은 후 큰 갈색 찻주전자에 넣은 찻잎 위로 끓은 물을 붓는 동안 엄마는 엘리자가 엄마와 함께 도망치게 된 이야기,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해 가면서 은신처에서 은신처로 이동한 이야기, 불행이 닥친 이야기 등 엘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노예 추적개가 그들을 발견하는 바람에 가족들은 흩어져서 도망쳐야만 했다. 엄마와 엘리자는 다음 은신처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엘리자는 오빠 없이 엄마와 둘이서 도망쳐야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며칠 후 노예추적자들에게 발각되어 엄마가 잡혀갔고, 엘리자도 거의 붙잡힐 뻔 했다.

“정말 무서웠을 거야. 가여운 아이지.”

엄마가 말했다.

“그런데 어찌다 우리 집에 오게 됐나요?”

“아브람씨가 데리고 왔어. 어젯밤 어두워진 후 보트를 타고 미국에서 데리고 왔지. 아브람씨가 최근에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오는 바람에 지금 그의 집이 감시를 받고 있단다. 그래서 엘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란다.”

요한나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브람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마을에 관한 온갖 소문들이 생겨났다. 강을 건너오는 도망 노예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찌지?

“저 아이 계속 우리 집에 있을 건가요?”

“잠시 동안이야. 아브람씨가 엘리자 가족에 관한 소식을 알아올 때까지만 보호해주는 거란다. 나중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어야해.”

요한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자신의 생각을 눈치챌까봐 고개를 돌렸다. 그래, 엘리자가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만 없다면 며칠만 참으면 돼.

아침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말했다.

“서랍에 넣어둔 옷들을 좀 찾아보렴. 도망 다니느라 엘리자의 옷이 엉망이구나.”

요한나는 작은 옷들을 뒤적이다가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체크무늬 옷을 발견했다. 그녀의 엄마가 이 옷을 만들다 남은 자투리 천으로 요한나의 중국인형 클라라의 옷을 만들어주었었다. 다른 사람 팔에 안겨 있는 클라라를 생각하니 다시 짜증이 났지만 엄마는 엘리자를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했다. 엄마는 엘리자에게 말벗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요한나는 파란색 체크무늬 옷을 도로 잘 개면서 생각했다. 대체 우리가 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요한나는 마와 모가 섞인 낡은 갈색 옷을 꺼내 들었다. 이 옷 정도면 맞겠다고 생각했다.

옷을 들고 재봉틀이 있는 방으로 돌아와 보니 엘리자가 깍지를 짝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클라라는 치마와 속치마를 동그랗게 펼친 채로 단정하게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요한나는 할 말을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오랫동안 꼼짝 않고 이 작은 방에 있어야하는 건 아니래.”

엘리자는 요한나가 침대 위에 올려놓은 드레스를 힐끗 본 뒤 깍지가 짝 끼어져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봤다. 엘리자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엘리자는 한숨을 쉬고는 한 손을 뺀어 치마를 받아들었다.

“지하철도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요한나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자유가 눈앞에 있다고 했어. 이층 창문에 있는 랜턴만 찾으면 안전할 거라고 했지.”

엘리자는 말을 멈추고 요한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손을 쳐다봤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 걸었어. 불빛을 찾았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지.

날이 밝기 직전 네 엄마가 우리를 부엌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 해주셨어. 아주머니는 ‘잠시만 기다리렴. 불을 피우고 아침을 좀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 볶음 요리였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지.”

엘리자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 고함 소리였는데 누구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어. 아주머니께서 나를 붙잡아 비밀장소에 밀어 넣으셨어.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작은 미닫이문을 닫으셨지.”

엘리자는 말을 멈췄다. 가냘픈 팔로 감싼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요한나는 엘리자가 다시 울 것만 같았다. 엄마를 부르려고 돌아서는데 인형이 보였다. 테이블에 있던 인형을 집어 들어 엘리자에게 건넸다. 인형을 받아 든 엘리자는 인형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잠시 후 엘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관 속에 있는 것 같았어. 손을 뺄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지.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고함소리와 아래층으로 쿵쿵거리며 내려가는 부츠소리를 말 이야. 그러다가 비명소리와 우는소리가 들렸어. 엄마 목소리라는 생각에 손을 더듬어 문을 찾았지. 애를 써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먼지가 쌓인 바닥에 얼굴을 대고 울기만 했어.”

엘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게 느껴져서 거기에  
대항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 너희 엄마였어. 아주머니가 내 다리를 잡으셨어.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 하셨지. 그 때 아주머니께서  
노예추적자들이 엄마를 데리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

엘리자가 다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으려는지 눈을 꼭 감았다. 거칠게 심호흡  
을 한 번 하더니 이를 악문 채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엄마를 찾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엄마는 분명 그들에게 굴  
복하지 않으실 거야.”

이내 엘리자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엘리자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

엘리자는 인형 머리에 뺨을 갖다 댔다.

“나쁜 일들이 생겨.”

하루 종일 요한나는 엘리자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옷을 다리고 옷을 갈 때도,  
채소 껍질을 벗기고 채소를 썰 때도, 설거지를 하고 그릇의 물기를 닦을 때도 엘  
리자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엘리자가 숨어 있었던 벽장 속 좁고  
어두운 비밀 장소, 부츠를 신고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 비명을 지르는 여자. 노예  
추적자는 아직도 엘리자를 쫓고 있을까?

“노예추적자가 왜 엘리자를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엘리자는 저보다도 어  
린 그냥 아이일 뿐이잖아요.”

그날 오후 의자에 앉아 감자를 깎는 엄마를 돕던 요한나가 말했다.

엄마는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노예와 관련된 일들은 모두 이해하기 어렵단다.”

엄마는 칼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엘리자와 그녀의 엄마는 일을 잘하는 하녀였다고 풀러씨가 그러더라. 그래서  
두 모녀의 가치가 높다고 하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나다까지 따라오는 건...”

“풀러씨가 그러는데 주인이 굉장히 큰돈을 주었대. 노예추적자들이 국경을 넘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액수라고 하더구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은 안

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엘리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요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면 어찌지? 이런 생각에 손이 떨려 과도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에서 피가 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하철도

캐나다 세인트캐서린즈에 있는 요한나네 집은 길고 험난했던 엘리자의 여정의 마지막 장소였다. 엘리자의 가족은 북부로 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믿고 버지니아의 작은 농장에서 탈출했다. 어딘가에 자유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다 줄 **지하철도**가 있다는 소문이 밤이 되면 노예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은밀하게 떠돌았다.

물론 실제로 땅 속에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망노예가 한 은신처에서 다음 은신처로 갈 수 있도록 비밀리에 도와주던 농부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망이 있었다. 그들은 붙잡힌 노예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서 도망노예들의 뒤를 봐주고 추적자들이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노예들을 자신의 집이나 헛간에 숨겨주었다. 이동할 동안 먹을 음식을 챙겨주고 북부로 가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었다.

자유로 가는 길에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1831년 타이스 데이비즈라고 불리는 도망노예를 쫓던 한 농장 주인은 노예를 거의 추격해서 사실상 손 안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노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데이비즈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황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지하도로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후에 그 이름이 **지하철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도망노예가 전국을 다니는 새로운 증기기관차처럼 빨리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1850년 이전에는 노예제가 불법인 북부에 도착하기만 하면 노예는 자유가 되었다. 하지만 1850년 도망노예법이 제정되자 노예제도가 불법인 주에 사는 사람들도 도망친 노예를 쫓는 주인들을 도와야 했다. 이로 인해 도망노예들은 자유를 찾아 더 멀리 북쪽으로 캐나다까지 가야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도 노예추적자를 피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 비밀

“소포는 저녁 기차로 도착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나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도망노예가 집에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

암호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지하철도**의 활동을 비밀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망노예는 ‘소포’ 혹은 ‘화물’이라고 불렸다. 도망노예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차장’이고 은신처는 ‘역’, 은신처의 주인은 ‘역장’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암호들을 사용해서 다음 은신처에 도망노예의 도착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단순히 기차로 도착하는 화물물에 대한 소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노예들은 **지하철도**조직과 접촉하기 오래전부터 암호를 사용했다. 노예들은 농장에서 농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음악을 이용하기도 했다. 강을 건너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오하이오 강을 건너 자유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나안’과 ‘약속의 땅’은 캐다다를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다. ‘가자, 가자, 주님께 가자’라는 노래를 불러 다른 노예들에게 곧 도망 시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렸다. 주인을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노예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 모세라고 불리는 여인

지하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암호명은 “모세”였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내자이다. “모세가 왔어.”라는 말이 남부 농장에 밤바람을 타고 전해지면 노예들은 불현 듯 희망을 느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의 해방을 도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차례다.

암호명이 모세였던 이 안내자는 남부로 열아홉 차례 이동하여 300명 이상의 도망노예를 캐나다로 데려다 주었다. 노예 주인들은



4만 달러라는 믿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을 보상으로 걸었지만 모세를 잡을 수 없었다. 당시에 이 용감한 자유의 용사가 도망노예 헤리엇 터브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헤리엇 터브먼은 1820년 메리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녀와 10명의 남매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주 채찍으로 매를 맞았다. 한번은 다른 노예가 남부로 맞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았지만 두 오빠가 팔려간다는 소리에 결국 그녀는 도망을 결심하게 되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헤리엇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지만 전문 별목꾼인 아버지로부터 숲을 무사히 지나가는 방법, 별을 보며 방향을 찾는 방법, 숲속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찾는 방법 등을 배웠다. 헤리엇 터브먼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전한 장소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가족을 잇을 수는 없었다. 북부로 가는 방법만 찾는다면 분명 가족들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었다. 다시 위험한 남부로 돌아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남매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부모님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다시 남부로 돌아갔다.

자주 남장을 했던 헤리엇 터브먼은 어둠이 내리면 노예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울빼미 우는 소리로 신호를 보내면 노예들은 소지품을 챙기고 나와 자유를 찾아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내자만큼 용감해야했다. 그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총을 가지고 다녔다. 겁을 먹은 사람은 그녀의 총을 피할 수 없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녀는 명령을 내렸다. 그룹 전체의 안전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했다. 후에 헤리엇 터브먼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결코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았다.”

헤리엇 터브먼은 1858년 까지 세인트캐서린즈를 본거지로 활동했다. 남북전쟁 때 그녀는 간호사이자 정찰병으로 일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을 했던 1863년 헤리엇은 부모님께 사드린 뉴욕 어번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데려와 함께 살았다. 이 집은 이제 모세라고 불렸던 용감한 여성을 기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노예

엘리자는 그녀의 엄마와 할머니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신분이었다. 그러나 엘리자의 증조할머니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느 한 마을에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 어느 날 젊은이들과 그룹을 이루어 정글을 지나가는데 낯선 남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 막았다. 도망치려고 뒤로 돌아서자 더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 긴장한 젊은 남자 몇 명은 도망쳤지만 엘리자의 증조할머니와 여섯 명의 친구는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사슬로 서로 묶인 채 강제로 걸으며 마을에서 점점 멀어졌고 정글을 벗어나 배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까지 갔다.

납치된 젊은이들은 강제로 배에 올라타야 했고 다른 납치된 사람들이 있는 짐칸으로 들어갔다. 짐칸에는 사람들이 마치 짐처럼 꽉 채워졌으며 사슬로 서로 묶여 있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데다가 살던 집에서 팔렸다는 사실에 절망한 많은 젊은이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6개월간의 항해를 견디지 못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한 새로운 땅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그들은 미국 서부의 농장 주인들에게 팔려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매를 맞으며 일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나무를 심거나 팥이질을 하고 사탕수수, 담배, 쌀, 목화 등을 수확했다. 어떤 이들은 이에 저항해서 늪이나 숲으로 도망치기도 했으나 배가 고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도망친 별로 잔인하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본 다른 노예들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노예는 매질이나 병 또는 과로로 죽을 때까지 일했다.

노예제도가 지속되는 25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농장 주인들은 노예들이 수확한 설탕, 담배, 쌀, 목화 등을 팔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노예들이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그들이 불렀던 노래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 이후의 세대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했다. 노예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다.

“모세여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에게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말해주오.”





# 엘리자의 이야기



“길은 어떻게 찾은 거야?”

부엌 식탁에서 엘리자와 함께 쿠키 반죽을 밀면서 요한나가 물었다.

“북극성을 따라갔어. 우리가 아는 건 그게 다야. ‘약속의 땅 캐나다로 가려면 북극성을 따라가라.’”

“약속의 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곳 말이야?”

“바로 그거야!”

엘리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

요한나는 마지막으로 반죽을 밀었다. 젓과 꿀! 데이지의 젓을 짜고 난 후 느꼈던 팔의 통증과 꿀을 모으다 벌침에 쏘였던 생각이 났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젓과 꿀은 넘쳐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엘리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요한나의 가족들이 추적자를 경계하면서 각자의 일을 하는 사흘간 엘리자는 이층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어.”

갈색의 마모교직 드레스에 바느질을 하면서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풀어낸 실이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감겨 있었다.

“치마는 이 정도면 됐어.”

엄마가 말했다.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거야.”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아래층에 내려온 엘리자는 내려오자마자 빵 만들기를 거들더니 ‘엄마가 만든 것과 같은 쿠키’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두 소녀는 식탁 위에서 얇게 편 반죽을 쿠키스탬프로 찍어냈다. 요한나는 주걱에 붙어 있는 반죽을 동그랗게 떼어내어 쟁반 위에 올렸다.

“다 됐어.”

요한나는 밀가루 반죽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한 숨을 돌렸다.

엘리자는 삼각형 모양의 밀가루 반죽 위로 허리를 구부려 칼끝으로 무언가를 그렸다. 요한나가 무엇을 그리는지 보려고 허리를 구부리자 엘리자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면 요한나의 얼굴을 올려보았다.

“나야.”

엘리자는 도망치는 사람모양 쿠키반죽에서 가루를 털어내며 말했다.

“여우에게서 도망친 토끼 이야기 들어봤어? 나는 키 작은 노부부에게서 도망쳤어.”

요한나가 끼어들었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서 도망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엘리자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요한나는 엘리자가 집에 온 이후에 처음으로 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명 아브람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잃어버린 소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야기가 나를 살렸어.”

요한나를 위해 오븐 문을 열어주며 엘리자가 말했다.

“어떻게?”

요한나의 가족은 매일 엘리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작은 목소리로 조금씩 들려주었지만 그녀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오빠는 냇을 놓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어젯밤 요한나는 재봉틀이 있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엘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계단에 앉아 듣고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았다.



“애들아, 아직 다 안됐니?”

요한나의 엄마가 거실 램프에 기름을 채우고 부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곧 점심시간이야.”

“죄송해요, 아주머니.”

엘리자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요한나는 뒤돌아 가는 엄마의 등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설거지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이다.

엘리자는 행주로 식탁을 닦기 시작했고, 테이블에 붙은 밀가루와 반죽을 칼로 긁어내어 믹싱 볼에 담았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요한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설거지물이 아직 끓지 않았어. 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너를 구했는지부터 듣고 싶어.”

요한나가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자 엘리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식탁에 팔을 올려놓았다.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엘리자의 눈이 게슴츠레해졌다.

“오빠와 헤어진 직후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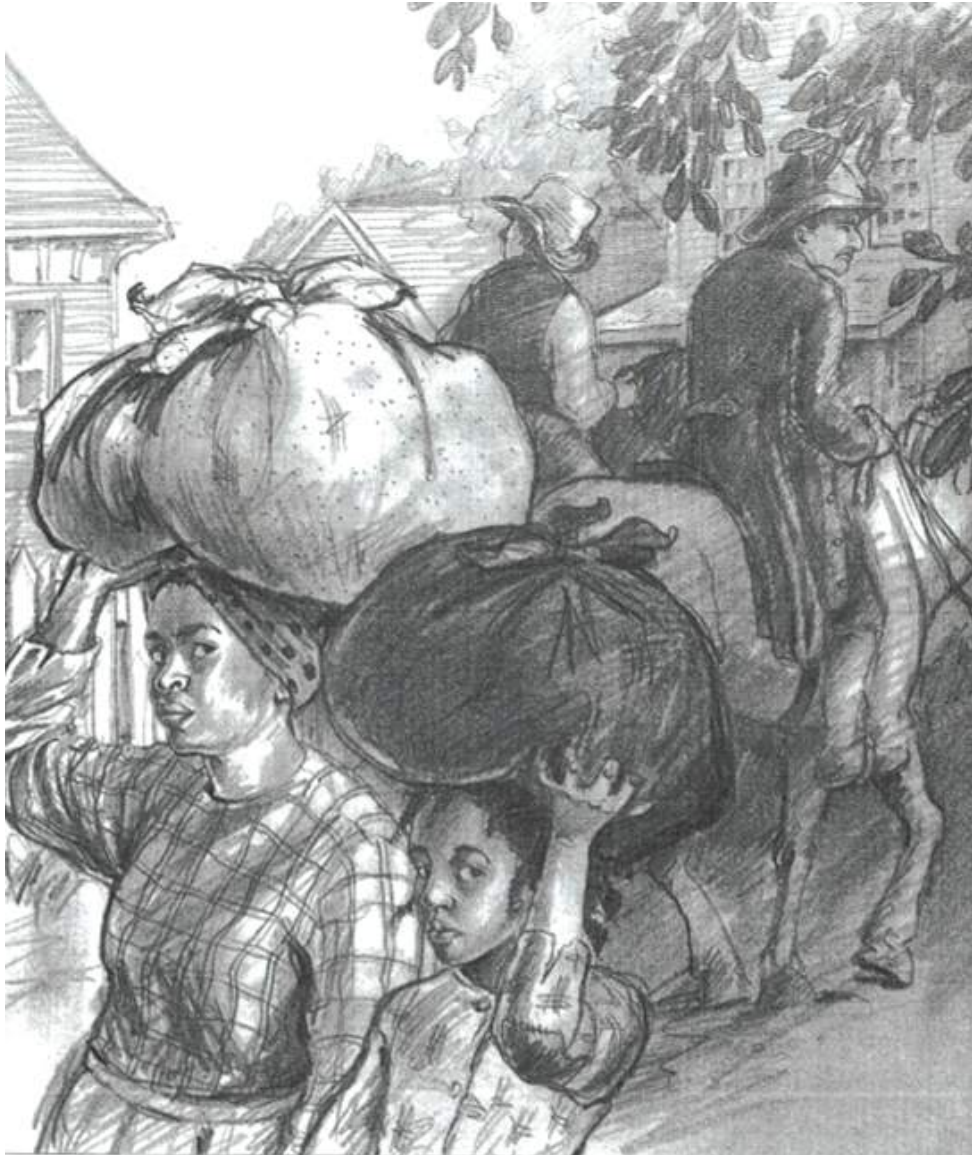
이야기를 시작하는 엘리자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분이 우리에게 서두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건초 더미가 실린 마차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작은 마을로 갔어. 꿈쩍 않고 있으려니 건초가 얼마나 꺼끌꺼끌했는지 몰라. 마차가 덜컹거릴 때가 짱이었지! 정말로 심하게 흔들렸어. 그렇게 헛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본 사람은 없었어. 꺼끌꺼끌한 건초 더미 속에서 기어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 들어오셨어.”





“겹에 질린 아주머니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두 명의 남자가 보안관과 함께 마을에 왔어요.’라고 말씀하셨지. 아주머니는 두려움에 몹시 떨고 계셨어. 우리를 도와주다 사람들이 잡혀 간다면 정말 큰일이었지. 아저씨는 다음 은신처로 데려다 주겠다고 다시 마차에 올라타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엄마가 헛간 문 밖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만 빨래 더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빨래하러 가는 것처럼 머리에 이고 마을로 가는 건 어떨까요?’라고 물어봤고, 아저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플라타너스 나무 두 그루가 심어진 집을 찾아 가시오.’라고 말씀해주셨어.”



그 때 주전자가 끊기 시작했다.

“멈추지 마! 계속 이야기해줘”

요한나가 벌떡 일어나 뜨거운 물을 설거지통에 부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엘리자의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다.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 하면서도 그녀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쳤어. 노예추적자들이 코앞에 지나다니는 거리 한 가운데를 따라 걸었지. 정말 두려웠어! 그때 엄마가 ‘엘리자, 그 생강쿠키 소년 기억나니? 왜, 우리는 키 작은 노부부에게서 도망쳤어. 그러니 여우에게서 도망치지 못할 이

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잖니.’라고 말씀하셨어.”

엘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 세탁물인 냥 그 세탁물들을 머리에 이고 길을 따라 걸었어. 노예추적자들이 탄 말이 반대편에서 따가닥따가닥 다가 올 때는 심장이 정말 터지는 줄 알았어. 그 때 엄마가 ‘눈은 바닥에 고정하고 허리를 꼴꼴이 세워 걸으렴.’하고 말씀하셨어. 엄마는 그들 바로 옆을 당당하게 지나갔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어. 곧 우리는 은신처에 도착했고, 숲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가는 두더지처럼 조심조심 들어갔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는 작은 소리로 ‘속았지? 여우야. 속았지?’라고 말씀하셨어.”

엘리자는 일어나서 방안을 빙그르 돌았다.

“속았지? 여우야. 속았지?”

“조심해!”

요한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엘리자가 잡고 있던 믹싱 불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렌지 위에 광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요한나의 엄마가 재빨리 부엌으로 다시 들어왔다.

“너희들 정말...”

엄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석으로 가서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쪼그려 앉았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엘리자는 조금씩 더 구석으로 들어갔다. 찌푸렸던 엄마의 표정이 퍼졌다.

“애야, 괜찮아.”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믹싱 불이 떨어졌을 뿐이잖니.”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서 천천히 나왔다. 재빨리 깨진 볼 조각을 앞치마에 주워 담은 엘리자에게 요한나의 엄마가 그것들을 치워주려고 다가가자 엘리자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요한나는 엄마가 엘리자를 야단친 것도 아닌데 왜 엄마를 무서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가 만든 소녀모양 생강쿠키를 오븐에서 꺼낼 때도 엘리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감자 깎는 일을 거들고 나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층에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요한나와 엄마는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결국 요한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릇 좀 깬을 뿐인데 왜 저래요?”

엄마는 그레이비소스<sup>1)</sup>를 몇 번 더 짓고는 한 숨을 쉬었다.

---

1) 고기를 익힐 때 나온 육즙에 밀가루 등을 넣어 만든 소스

“아빠는 개가 학대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니.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하지만 접시를 깬다고 학대를 당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엘리자가 태어난 곳에서는 그런다고 하는구나.”

“물건을 깨뜨렸다고 매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분명 그보다 훨씬 사소한 일에도 그럴 거야. 브라운씨가 전에 노예를 동물처럼 다루는 주인이 많다고 했던 말 기억나니? 그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노예를 때린다는구나. 엘리자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엄마는 평소처럼 빠르게 말했다.

“저녁 식사하게 올라가서 엘리자를 데리고 내려 오거라. 저녁식사 준비가 다 된 것 같구나.”

요한나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향했다. 무슨 말로 엘리자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 때 식히려고 창틀에 올려둔 엘리자가 만든 소녀모양 생강쿠키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쿠키를 집어 들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엘리자는 중국인형을 안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인형 귀에 대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요한나가 온 것을 본 엘리자는 허리를 꼴꼴이 펴고 앉더니 손에 있던 인형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요한나가 말했다.

“가지고 놀아도 돼... 안아도 되고.”

“나도 인형 있어.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

엘리자는 중국인형이 입고 있는 파란색 체크무늬 치마를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졌다.

“노예추적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엄마의 앞치마 주머니에 인형이 들어있었어.”

요한나는 엘리자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아브람씨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해줄까? 하지만 그 분이 엘리자의 오빠를 찾지 못했다면 어찌지? 그때 소녀모양 생강쿠키가 생각났다.

“짤!”

요한나는 엘리자에게 생강 쿠키를 건넸다.



“자유롭게 달리고 있는 네 모습이야.”

엘리자는 잠시 동안 쿠키를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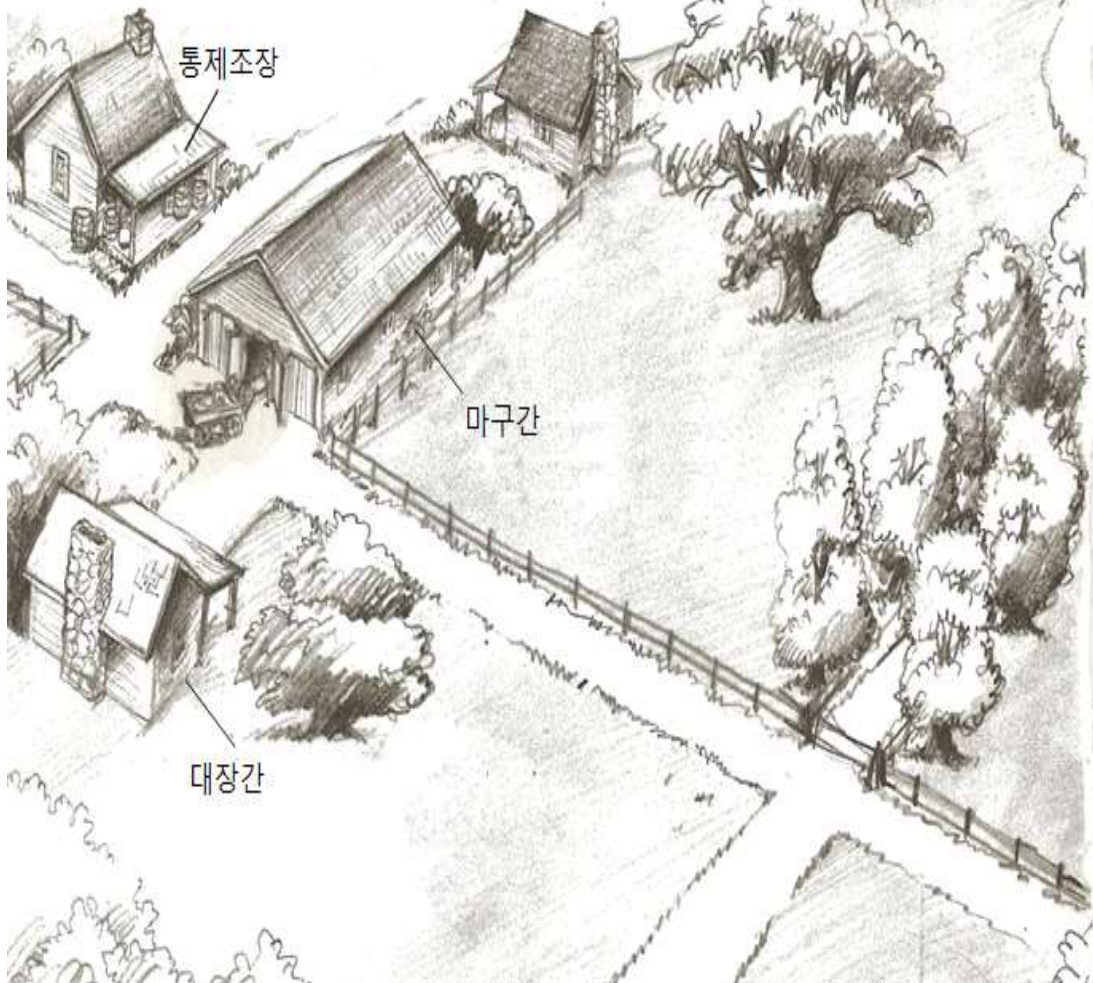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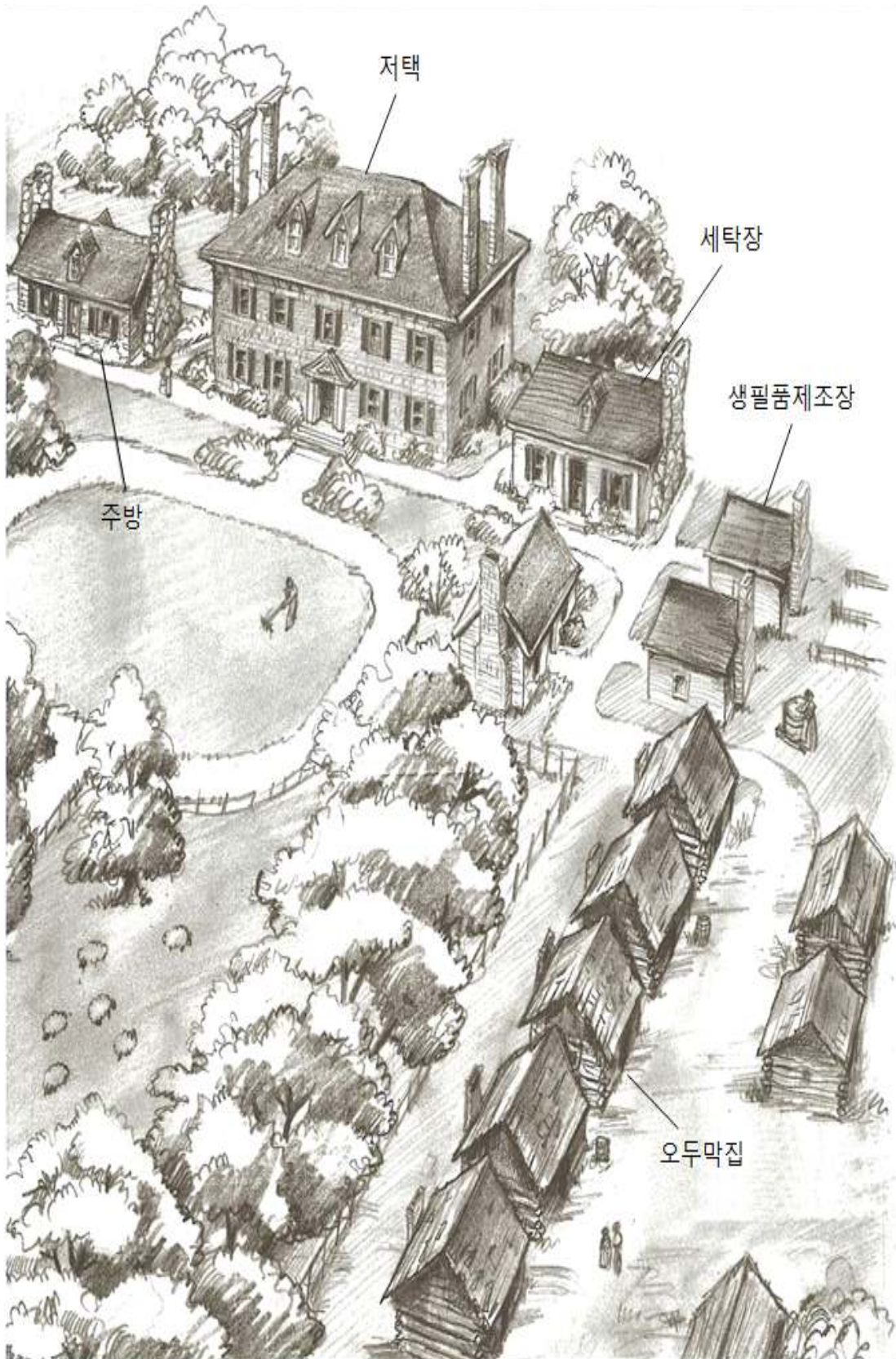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유롭지 않아. 그냥 달리는 거야. 사람들이 엄마와 오빠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달리는 거야.”

## 목화농장

엘리자의 가족은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자유를 찾아 도망쳐 나왔다. 단일작물을 재배하는 큰 농장이었다.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담배가 재배되었다. 사탕수수와 벼는 덥고 습한 지역에서 재배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물은 목화였다. 농장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그리고 물건들을 모두 직접 만들어야 했다.







## 목화농장

통제조장	통 만드는 교육을 받은 노예들이 목재 원통, 양동이, 빨래 통, 대형 우유 통 등을 만든다.
대장간	대장장이 교육을 받은 노예들이 일한다. 말굽에 편자를 박고, 공구와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수리한다.
텃밭	주인 가족이 먹을 음식 재료를 재배한다.
우물집	돌 위를 흐르는 물로 우유와 버터 등을 신선하게 유지시킨다.
마구간	주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힘든 일을 하는데 이용되는 노새가 있다.
저장고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다. 키는 안주인이 가지고 다닌다.
훈제장	햄과 소시지를 걸어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다.
주방	큰 벽난로가 있고, 빅하우스를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빅하우스와 따로 떨어져 있다.
빅하우스	주인 가족이 산다.
세탁장	노예들이 주인가족의 옷을 빨고 다림질 한다.
생필품제조장	여러 개의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예들이 비누와 초를 만들고 옷감을 짜거나 염색하고, 바느질한다.
오두막집	줄지어 지어진 오두막집에 노예들이 모여 산다. 오두막 한 채에는 보통 예닐곱 명의 가족이 산다.

## 빅하우스의 노동



엘리자가 태어나자 엄마는 엘리자가 주인가족이 사는 빅 하우스에서 일하도록 훈련받기를 기도했다. 집안일도 힘들었지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들어나가 일하는 것만큼 고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엄마는 안주인이 여섯 살이 된 엘리자에게 요리와 바느질 그리고 세탁 돕는 일을 배우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기뻐했다.

### 요리

안주인은 주방에서 노예 한두 명이 텃밭에서 기른 농작물을 저장하고 주인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감시했다. 레인지는 없고 큰 벽난로만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거위, 닭, 돼지고기, 심지어 주머니쥐까지도 요리했다. 완두콩을 함께 넣은 고구마와 콜라드<sup>2)</sup>로 만든 요리를 자주했다. 엘리자는 완두 깍지를 까거나 쇠꼬챙이에 끼운 거위고기를 뒤집는 일을 거들었다.

매일 아침 레아는 일찍 일어나 주인집 아침 식사로 스펀 브레드나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효모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븐에 남아 있는 열기로 케이크나 파이, 쿠키를 데웠다. 엘리자는 체리 씨를 빼거나 당밀쿠키를 곱으로 찍어내면서 주인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2) 잎채소 - 잎이 두껍고 강한 향이 나며 중간에 거친 잎맥이 있는 채소. 시금치처럼 날것으로 먹거나 조리하여 먹는다.



### 바느질

매년 안주인은 노예들이 입을 여름옷과 겨울옷을 만들기 위하여 면과 마나 면이 모와 섞인 면모교직물을 여러 필씩 샀다. 엘리자는 엄마와 다른 노예들이 수십 개의 셔츠와 바지, 치마를 만드는 일을 거들면서 바느질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누비이불을 만들 천 조각을 모으는 일도 도왔다.

1845년에 재봉틀이 나왔지만 바느질을 모두 손으로 했다. 남부에는 일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전 방식이 지속되었다. 재봉 솜씨가 좋은 엄마는 주인집 아이들이 입을 주름 잡힌 속치마와 속바지를 자주 만들었다. 한번은 엄마가 쓰다 남은 파란색 옥양목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엘리자에게 인형 옷을 만들어주었다.

### 빨래

빨래는 구리로 만든 큰 빨래 통에서 흰 옷을 모두 삶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염색된 옷은 따뜻한 물에 담가 색이 바래지지 않게 했다. 흙이 묻은 부분은 나무 빨래판에서 문질러 빨았다. 갈래진 큰 막대기로 비눗물이 묻은 빨래를 차가운 물로 옮겨 행켰다. 무거운 옷은 목재 탈수기를 이용해서 탈수 시켰다. 가벼운 옷들은 손으로 짰다.

엘리자는 엄마를 도와 손수건과 셔츠의 옷깃을 잘 펴서 햇빛이 비치는 풀밭에 널어 말리고 표백했다. 축축한 스타킹은 줄어들지 않게 발 모양 판을 이용해서 펴서 널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면 모두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마른 빨래를 다림질 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 생강쿠키 만들기

요한나의 어머니는 주인집 아이들에게 맛있는 생강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크리스마스에 사람모양 생강쿠키를 만들어 주면 아이들은 말린 크랜베리와 함께 끈에 매달았다.

누구든지 생강쿠키를 만들 수 있는데 엘리자처럼 달리는 사람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재료-

버터 75 mL

황설탕 75 mL

잘 저은 달걀 1개

베이킹파우더 15mL

소금 약간

다진 생강 5mL (1 티스푼)

울스파이스가루 또는 정향가루 약간

계피가루 10mL

밀가루 750mL

당밀 150mL

장식용 건포도



1. 어른에게 부탁해서 오븐의 온도를 200도로 맞춘다.
2. 큰 볼에 버터와 황설탕을 넣어 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섞는다. 이것을 저어놓은 달걀에 넣어 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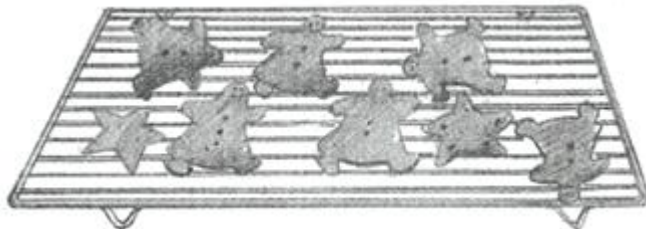


3. 베이킹파우더, 소금, 갖은 향신료와 밀가루를 다른 큰 볼에 대고 체로 친다.

4. 2에 3을 한 스푼 넣고 잘 짓는다. 당밀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짓는다. 3과 당 밀가루를 모두 다 쓸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반죽을 뽁뽁하게 만든다.
5. 반죽을 정사각형 모양 왁스 페이퍼에 올려놓는다. 밀대로 반죽을 밀고 두 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킨다.
6. 반죽 가운데 밀가루를 뿌리고 0.5cm 두께가 되도록 밀대로 민다.



7. 사람모양 등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다. 건포도로 눈, 코, 입, 단추를 만든다. 버터 바른 베이킹트레이에 주걱으로 쿠키를 옮긴다.
8. 어른에게 부탁하여 베이킹트레이를 오븐에 넣는다. 10분 동안 굽는다.
9. 주걱으로 쿠키를 스테인리스 받침에 옮긴다. 쿠키를 식힌다.



##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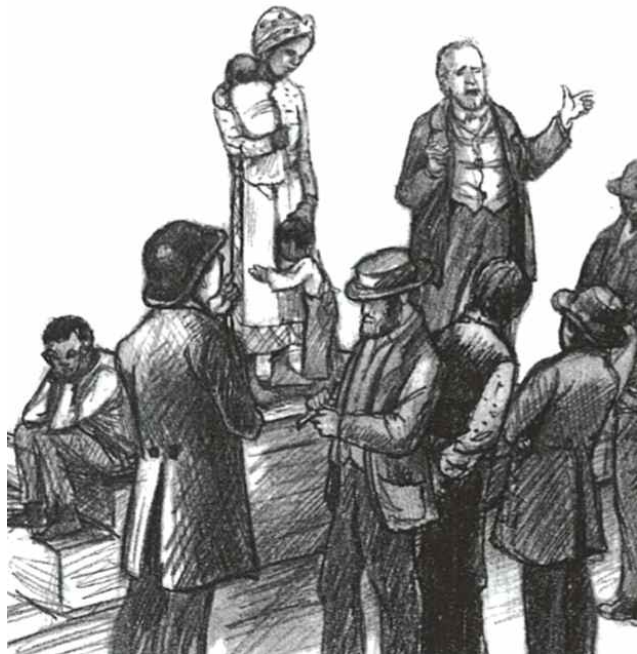
“저 여자 아이는 열한 살이야.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고분고분해. 저 남자 아이는 순하고 힘이 세지. 경매에 내 놓으면 좋은 값에 팔릴 거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애들이지.”

이 말을 들은 레아는 공포에 떨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아이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주인은 결국 엘리자와 벤을 경매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노예를 파는 일은 흔히 있었다. 노예들의 삶은 전적으로 주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주인들은 노예가 어디에서 살아갈지, 무슨 일을 할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건지 등을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또한 노예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면서까지도 노예들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노예들은 마을 장터에서 경매로 팔렸는데, 경매대라고 불리는 단상에 서면 사람들이 그들을 죽 훑어 본 후 경매가격을 불렀다.

레아도 경매대에 한 번 오른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젊은 엄마였던 그녀는 큰 농장에서 요리와 빨래를 했다. 그녀의 남편 샘은 같은 농장에서 대장장이로 일했다. 주인 가족은 부지런한 이 두 사람을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샘은 주인이 노름빚을 갚기 위하여 남동생과 세 명의 다른 노예를 팔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예를 ‘강 하류’로 팔아 미시시피 강 남부의 목화농장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포악한 감독관들이 노예들에게 죽을 만큼 일을 시켰다. 힘이 세고 젊은 샘의 동생은 목화농장 주인에게 1000달러 이상에 팔



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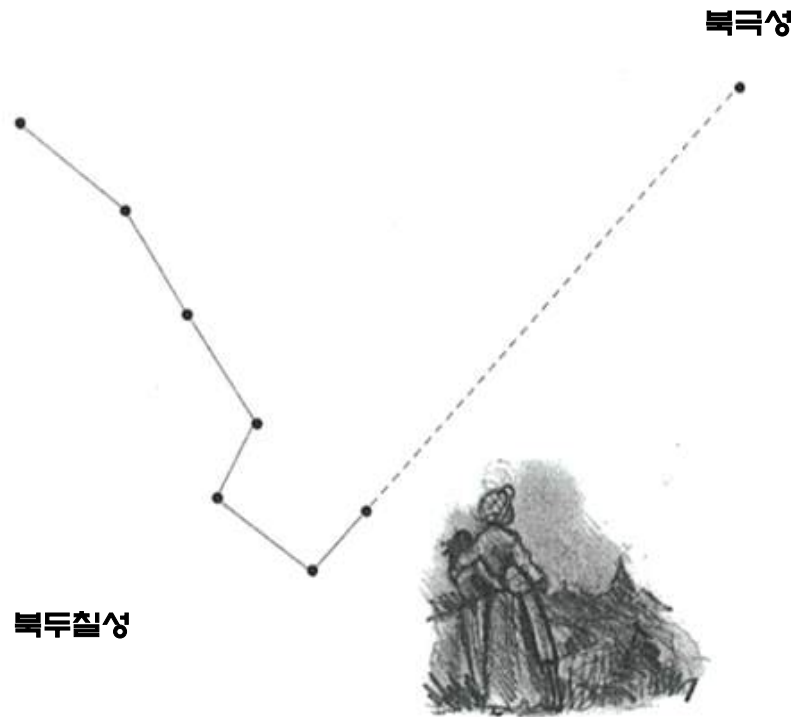
슬픔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샘은 동생과 다른 노예들이 쇠사슬로 말뚝에 묶여 있는 헛간으로 갔다. 대장간 연장으로 쇠사슬을 내리쳐 끊고 그들이 도망가는 동안 망을 봐주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샘은 벌로 북부로 팔려 갔다. 레아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경매대에 오르게 되었다. 주인은 농장에 반항심을 갖고 있는 노예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레아는 경매에 내놓은 암말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 볼 때 경매대 위에서 느꼈던 치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망을 쳐서라도 아이들은 절대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레아는 도망을 결심했던 많은 다른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을 때 까지 노래를 목 놓아 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불렀다.

*♪ 경매대는 싫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났네  
모두 떠났네*

## 북극성을 따라서



엘리자의 가족은 지도도 없이 ‘북극성을 따라가라.’라는 말을 유일한 길잡이로 삼아 캐나다로 향했다.

항해사들과 탐험가들은 항상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 그들은 별을 찾기 위해서 아스트롤라베(astrolabe)<sup>3)</sup>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도망 노예들에게는 그런 도구가 없었다. 대신에 그들은 북두칠성을 보고 북극성을 찾았다.

누구든지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북극성을 찾는 방법-

북두칠성을 찾는다. 국자의 측면을 이루고 있고 손잡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 두개를 찾아라. 이 두 별을 잇는 선을 그려 하늘 쪽으로 죽 이어가라. 선상에서 홀로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을 찾아라. 그 별이 북극성이다. 북극성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서면 북쪽 방향을 향해 서있는 것이다.

---

3) 과거 천문 관측에 쓰이던 장치



엘리자의 가족은 청명한 밤에 북극성을 따라 길을 걸었다. 어느 날 밤 구름 때문에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자 벤은 탈출을 시작할 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이끼는 항상 나무의 북쪽에 가장 많이 낀다. 나무 기둥에 자라는 이끼를 찾아라.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북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캐나다의 노예

북쪽으로 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노예들은 캐나다를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캐나다가 항상 자유로운 땅이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노예가 필요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식민지의 노예를 사서 남부로 데려가기도 하였다. 흑인을 노예로 만든 사람도 있었다. 1775년 미국혁명이 발생하자 더 많은 노예들이 남부로 갔다.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 도망을 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흑인 노예들을 노바스코샤주와 퀘벡주로 데려간 것이다.

어퍼캐나다주(지금의 오타리오주) 부지사 존 그레이브스 시모체는 1793년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 당시 노예를 데리고 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의 뜻을 펼치기가 힘들었다. 그는 어퍼캐나다로 노예를 더 이상 데리고 올 수 없으며 식민지에서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스물다섯이 되면 자동으로 자유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예를 학대한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영국 정부가 모든 식민지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1834년경 캐나다는 이미 노예를 해방시켰다.

1850년 미국에서 모든 미국인은 도망노예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도망노예법이 통과되자 캐나다는 노예들에게 유일한 천국이 되었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노예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1851년 토론토에 캐나다노예폐지협회가 생겨서 노예제도폐지를 도왔고 흑인 도망노예들에게 집과 입을 옷을 제공해 주었다. 다른 도시와 마을에도 비슷한 단체들이 있었다.

1863년 노예해방선언으로 미국의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캐나다에서는 60,000명의 도망노예들이 자유를 되찾아 안정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 노예해방론자



노예제를 불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던 사람들은 잘못된 노예제 관행이 폐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스스로 노예해방론자라고 불렀다.

노예해방론자들이 초기에 만든 단체 중에 웨이커교라고 불리는 종교에서 만든 프렌드회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웨이커교도들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종종 있었다.

노예해방론자들은 노예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했다. 헤리엇 스토는 이야기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에 사이먼 러그리라는 잔인한 백인 농장주에게 매를 맞는 나이 많은 착한 노예가 나온다. 이 책을 읽은 북부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톰 아저씨의 이야기를 읽은 북부사람들은 남북전쟁이 선포되자 자발적으로 참전했다.

## 레위 커핀



레위 커핀은 웨이코교도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노예해방론자이다. 그와 그의 아내 캐서린은 **지하철도**가 지나가는 인디애나주 뉴포트(지금의 인디애나주 파운턴 시티)에 살았다. 비밀방과 지하창고를 지어 많은 도망 노예들을 숨겨주었다. 그 후에도 부부는 신시내티에서 계속해서 노예들을 도왔다. 35년 동안 부부는 2000명이상의 노예들이 자유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커핀 부부가 노예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레위 커핀은 다른 사람들을 그가 하는 일에 동참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를 신뢰했다. 차장과 역장을 돕는데 돈이 필요하면 인맥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는 **지하철도**를 돌아보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망노예들을 잘 대해주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았다. 캐나다에 가서 노예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노예들을 도운 업적으로 그는 **지하철도** 사장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 벤의 탈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제 정말 안전하고 자유로워진 거 맞아?”

벤은 왈각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엘리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말 안전하고 자유로워진 거 맞아.”

엘리자는 오빠가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말했다.

“이제 엄마만 찾으면 돼.”

벤은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을 참았다. 그는 오랫동안 엘리자와 엄마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자신의 허리를 꼭 안고 있는 어린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벤을 만난 흥분이 차츰 잦아들자 요한나네 가족은 두 남매를 남겨 두고 부엌을 나왔다.

“뒤쪽 버너에 있는 냄비에 스프가 있단다.”

레이드 부인은 가족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하며 말했다.

“도망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속을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거야.”

“오빠, 의자에 앉아서 이거 좀 먹어.”

식탁에 스프 그릇을 내려놓으며 엘리자가 말했다. 엘리자는 나이프를 꺼내 레이

드 부인이 큰 치즈 조각 옆에 놓아둔 빵을 잘랐다.

“오빠가 문으로 들어올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엘리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마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머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둘러 이층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더니 문이 열렸고 오빠가 거기에서 나타난 거지.”

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스프를 떠먹었다. 다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다. 벤은 아브람씨의 사과주 통에 몸을 구겨 넣어 다리를 건넜고 그 후에 그에게서 세인트캐사린즈에서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부엌문이 열리는 소리에 벤이 놀랐다. 이렇게 작은 소리에 놀란 적이 있었을까? 요한나의 아빠가 모자에 빗물을 떨어내며 들어왔다.

“폭풍이야.”

그가 말했다.

“아브람씨는 집에 가는 도중에 붙잡힐 거야. 분명해.”

불쏘시개를 가득 들고 탐이 따라 들어왔다. 그 때 요한나는 엄마와 함께 부엌 뒤편에서 테이블 위에 의자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빈 접시를 치우며 엘리자가 말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요한나의 아빠는 종이 불쏘시개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벤은 손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랐다. 가만히 앉아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이블 위에 신문이 네모반듯하게 쌓여 있었다. 벤은 무의식적으로 신문 한 장을 돌돌 말아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엘리자는 자신이 만든 불쏘시개가 반쯤 채워진 단지를 오빠에게 건넸다. 엘리자에게 미소로 답을 한 벤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수줍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걸까? 엘리자는 궁금하겠지. 하지만 이 낯선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뭘까? 북부로 가는 동안 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궁금했었다.

벤은 목을 가다듬었다. 어디서부터 말할까?

“5일 동안은 엘리자와 엄마와 함께 도망 다녔어요.”

벤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끄러워 머뭇거리다 말을 시작했다.

“6일 째 되던 밤에는 보름달이 떴어요. 낮처럼 밝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계속 이동했어요. 그러다 그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추적자가 사냥개 4마리와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엄마가 찢어지자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큰 숲이었어요. 저는 곧 길을 잃었지요. 그러다 늪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던 벤은 갑자기 뒤쪽에서는 멀리서 사냥개들이 뒤따라오고 앞쪽에는 어둠속으로 이어지는 구부러진 좁은 길이 있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사냥개들이 벤의 냄새를 맡은 걸까? 낯선 길을 따라 맨발로 도망치던 벤은 개울이 생겨 자신에게 길을 내어주기를 기도했다.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을까? 그러면 개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나무 위에서 꼼짝 않고 개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을까? 벤은 필사적으로 계속 달렸고 돌과 나무뿌리에 발이 찍혀 나중에는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무언가에 발목이 잡힌 벤은 곤두박질치며 진흙탕 위로 넘어졌다. 뱀일까! 거칠게 심호흡을 했다. 아니다! 옆으로 뺨은 덩굴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벤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러다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다. 일어나! 일어나!

벤은 손바닥을 땅에 두고 밀었다. ‘찌익’하는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벤의 오른손이 미끄러운 진흙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팔꿈치까지 진흙에 빠지자 등 뒤의 딱딱한 바닥에 무게를 실어 팔을 조금씩 움직여서 진흙 밖으로 빼냈다. 천천히 끈적끈적한 진흙에서 빠져나왔다. 한 발자국만 더 갔더라면 산채로 늪에 빨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요동치던 심장박동이 느려지자 다시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뒤쫓아 오는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늪을 빠져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둠속을 응시하며 웅크리고 앉아 자신 앞에 놓인 뚫을 수 없는 벽을 감고 올라가는 나뭇가지들을 상상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절박함이 벤을 재촉했다.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잠깐. 저게 뭐지? 깜박거리는 빛! 반딧불이인가? 아니다. 흔들거리며 벤에게로





천천히 다가오는 불덩이 같았다. 공포감에 머리털이 곤두섰다. 늑의 유령! 이런 유령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언제나 불덩이 속에서 돌아다닌다고 했다.

“오, 형제여. 왔구먼. 하느님 감사합니다!”

불 빛 뒤에서 목이 쉰 것 같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

계속해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를 들었거든. 일어나게. 그리고 나를 따라 오게.”

벤은 허둥지둥 일어났다. 부드러운 랜턴 불빛에 언뜻 백발의 곱슬머리와 웃는 얼굴이 비쳤다. 유령은 아니었다. 다행히 진짜 사람이었다.

“하지만 늙은...”

약하고 쭈글쭈글 주름진 노인의 모습을 본 벤은 뒤쫓아 오는 개들이 생각났다.

“정의의 길은 밝은 빛과 같지. 이 줄을 잡게, 형제여. 줄을 자네 뒤쪽으로 떨어



뜨리고 바짝 따라오게.”

썩어가는 식물에서 나는 악취 속에서 벤의 코를 자극하고 눈물을 나게 하는 특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노인이 건넌 밧줄 끝이 흔들리면서 전해지는 무게감을 느  
끼면서 벤은 죽은 사람의 냄새일거라고 생각했다. 잘 가라, 개들아. 냄새를 뒤로  
하고 벤은 서둘러 어둠의 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안내자의 뒤를 따라갔다.

늪의 사망에서 배반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키 작은 남자 뒤를 바짝 따라 걸

으며 벤은 발밑에 단단하고 안전한 길이 있음을 느꼈다. 이 늑의 천사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의 목소리는 생생한 물소리와 같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가 흔들리는 랜턴에 부딪쳐 돌아왔다. 벤은 어렴풋이 검게 빛나는 물과 말뚝에 매어져있는 작은 배를 보았다.

“배에 타거라.”

벤이 배 뒤쪽에 앉자 그 남자는 랜턴 불을 끄고 배에 올라타 밧줄을 풀었다. 그가 바깥쪽으로 노를 젓자 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니 흔들렸고, 두 사람은 강을 살펴보았다. 어둠속에서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벤은 목소리가 물을 따라 전달될까 봐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안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왔다를 반복하는 노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곧 그들은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벤은 보트 밖으로 기어 나오다가 노걸이를 덮고 있던 천에 살짝 스쳤다. 언덕 중턱에 작은 집이 하나있었는데 이층 창문에 랜턴이 켜져 있었다.

“랜턴을 찾으렴.”

엄마가 이렇게 말했었다.

“랜턴이 너를 지켜줄 거야.”

키 작은 그 남자가 어두운 출입구로 들어갔다. 벤은 그 뒤를 따라 꺼져가는 불씨가 희미하게 밝히는 방으로 들어가다가 얼어버린 듯 멈춰 섰다. 늑에서 만난 천사가 그를 배신한 걸까?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고 있었다.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백인이었다.

“겁내지 말거라.”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이 집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란다.”

벤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어디죠?”

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내 이름은 헨리란다.”

의자에 앉아 있던 남자가 말했다.

“너는 지금 지하철도의 역에 도착한 거야. 저기에 서있는 루벤이 차장이니 나는 역장이구나. 열차에 탄 것을 환영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네가 안전하게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엘리자의 말에 깜짝 놀란 벤이 말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들이 사라졌다. 어디까지 말했지? 뉘. 벤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루벤과 헨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후로는 안전했니?”

엘리자의 아빠가 물었다.

“안전이요?”

벤은 고개를 저었다.

“안전하지 않았어요. 단지 잠시 동안 추격자들의 눈에서 벗어났을 뿐이었죠.”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도와준 거야?”

“여우처럼 영리한 분들이었어요. 둘 사람 모두 양철공이었어요. 다음날 무엇에 쓰이는지 건지 알 수 없는 랜턴과 국자를 매달고 마차가 출발했어요. 관자바닥 아래 비밀 찬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간 후에 기차가 출발했어요.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농부들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다 질식해서 죽으면 어찌려고!”

요한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철통들이 딸그락 거렸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헨리 아저씨가 찬장 문을 열어 주었고, 그 때 저는 잠시 바람을 쐬 수 있었죠.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곧 다시 찬장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아빠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한 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벤은 잠시 동안 지난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지는 순간을 제외

하고는 루벤은 항상 친절하게 말했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의 얼굴에 늘 가득했던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상대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배회하면서 집어삼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

벤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일 밤 현관문을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친구의 친구’라는 암호를 말할 때 마다 두려움에 가슴이 조였다. 루벤과 헨리처럼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줄 사람들이 저 안에 있을까? 하지만 늘 기적이 일어났다.

문이 열리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어서 와요, 친구.’라고 말을 했고, 벤은 또 다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얼마나 걸렸어?”

탐이 물었다.

벤은 잠시 동안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출발 하고 여섯 번째 되는 날 보름달이 떴어.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것 같아.”

“한 달 정도라고 치자.”

탐이 마음대로 결론지었다.

“한 달 동안 걷기.”

탐은 뭔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벤이 엘리자를 바라봤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밤새 걸었을 뿐만 아니라 추적자들이 마차를 살펴볼 때는 거름 아래에 죽은 사람처럼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했고, 은신처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비좁은 흙 터널을 간신히 지나가기도 했다. 달리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이제 여기에 왔으니 괜찮아.”

엘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안전한 약속의 땅에 온 거라고.”

엘리자의 말을 들은 벤은 이전 주인이 웃으며 ‘캐나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주인과 함께 농장 입구에서 쇠사슬에 묶여 발을 질질 끌며 말을 탄 사람 옆을 걸어가는 흑인을 봤다. 조였다. 그가 도망쳤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저기 남자 아이 보이지?”

주인이 말했다.

“저 모습이 바로 캐나다가 네게 주는 현실이다. 저 아이는 늪을 건너지도 못했구나. 어디로 도망친다고? 캐나다? 그곳에 가면 엄청 추워서 네 발이 곧 얼어버리겠지. 얼음을 쌓아두는 얼음 창고 알지? 캐나다는 바로 그런 곳이야. 얼음 창고에서 사는 것 같을 거야.”

얼음 창고처럼 춥다고? 벤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니다. 이전 주인은 많은 것을 잘못알고 있었다. 캐나다가 춥다는 것도 분명 그가 잘못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캐나다가 춥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 농장에서의 삶

그날 저녁 벤은 헨리와 루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루벤이 어찌다 미시시피강 남부 농장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다섯 살 때부터 열다섯에 농장에서 도망칠 때까지 그는 농장에서 목화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큰 목화농장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그 수가 200명에 달하는 농장도 있었다. 주인이 고용한 감독관이 농장을 운영했다. 감독관은 노예들에게 하루 작업량을 할당해 주었고, 제 몫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했다.

루벤과 다른 노동자들에게 미국 최남단의 농장에서의 삶은 짧고 고통스러웠다. 동이 트기도 전에 감독관이 나팔을 불면 노예들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작은 오두막집 흙바닥을 덮고 있는 벧짚더미에서 허둥지둥 일어났다. 썩이를 손에 들고 들판으로 나가 농작물을 심고, 심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일을 했다.

오전 10시에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불을 피워 아침식사를 준비했다. 대부분 물에 옥수수가루를 조금 개어 불에 달군 호미자락에 구운 옥수수빵을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는 곧 다시 일을 시작했다.

감독관은 하루 종일 농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소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다녔기 때문에 노예들은 두려워서 말대답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다. 감독관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예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오후에 잠시 휴식을 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일했다. 땀별 아래에서 15시간동안 고된 노동을 하고 난 뒤에야 오두막으로 돌아가 저녁식





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끓는 옥수수죽에 공동으로 가꾸는 작은 텃밭에서 따온 푸른 채소를 조금 넣었다.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나 생선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저녁을 먹은 뒤 쓰다 남은 천 조각을 이어 만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감독관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을 잤다.

노예들에게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이 되면 빨래를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노예들을 위해서 예배시간을 마련해주는 농장주인도 있었다. 예배시간에 들은 이야기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고된 노동과 학대로 고통 받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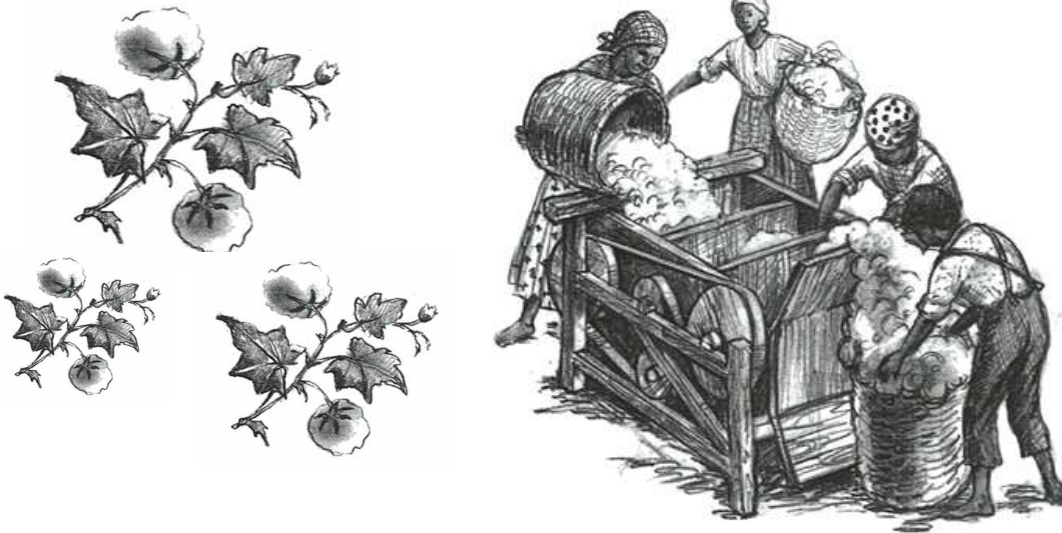


## 조면기4)

남부의 농장 주인들은 수십 년간 목화를 재배하면서 목화에서 먼지와 씨를 효율적으로 빼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1793년 조지아의 한 농장의 주인이었던 그린 부인은 엘리 휘트니라고 불리는 방문객이 남편을 위하여 많은 장비를 만들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린 부인은 그에게 목화씨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만에 휘트니는 동네 대장장이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기계를 개발해냈다. 그는 상자 아랫부분에 철사를 연결해 쇠살 대를 만든다. 철사 사이에 끼워 넣은 원형 톱날이 박스 안에 있는 목화 열매 덩어리를 자르면 목화섬유는 쇠살 사이를 빠져나가고 씨앗과 먼지는 남아있게 된다. 면화기를 사용하면서 노예들은 이전보다 200배 더 많은 작업을 소화해 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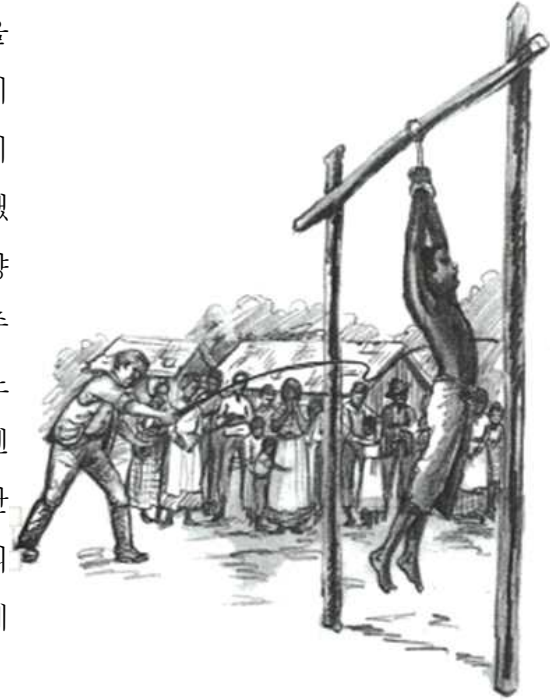
후에 휘트니는 한번에 80개의 톱을 돌릴 수 있는 물레방아를 만들었다. 면화기 한 대는 이전보다 1000배 더 많은 작업을 소화했다. 영국과 미국 북부의 방적공장에서 배에 싣기가 무서울 속도로 목화를 사들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목화 수요의 증가는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1808년 아프리카의 노예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상인들은 노예를 몰래 데리고 들어왔다. 노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자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4) 목화씨를 빼는 기계

## 해방노예

열다섯 살 때 루벤은 감독관과 언쟁을 했다가 채찍으로 매를 맞았다. 그 전에도 매를 많이 맞았었지만 그 때 허리에 난 상처들을 치료하면서 도망을 결심했다. 은신처를 이어주는 길에 헨리네 양철가게가 있었다. 헨리는 루벤을 숨겨주고 일거리도 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노예추적자가 두려웠다. 결국 헨리는 루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헨리는 주인에게 루벤을 사서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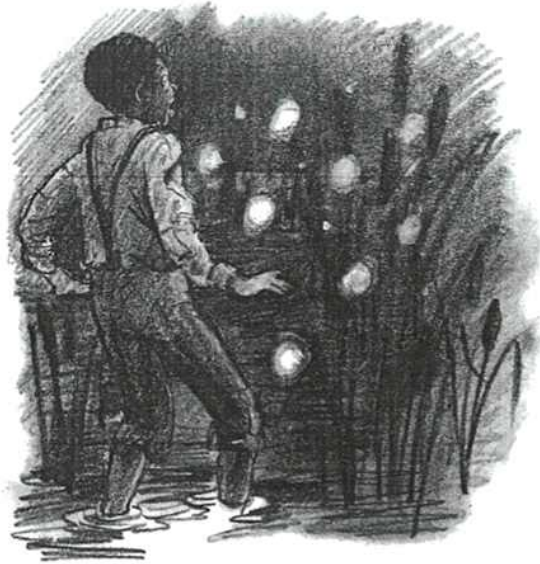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해방이라고 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노예를 풀어준 주인도 있었는데 집안일을 했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다. 노예해방론자들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다. 한가한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해도 좋다는 주인의 허락은 받은 노예들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유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해방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늘 지니고 다녔다.

루벤은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역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밤이 되면 도망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강둑을 돌아다녔다. 그는 또한 환영한다는 암호로 불이 켜진 랜턴을 이층 창문에 놓아두었다.

도망노예들은 역장이 자신들처럼 흑인인 경우 가장 안도감을 느꼈다. 많은 백인들이 역장이 되었고, 은신처를 운영했지만 지하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해방노예이거나 가족과 친구를 구하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도망노예들이었다.

## 늪의 유령



노예들은 뱀이 나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악어가 나오기도 하는 위험한 늪지대를 지나 도망쳤다. 벤은 늪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으스스한 불덩이나 깜빡거리며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돌아다니는 늪의 유령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다. 유령은 미신이었지만, 늪에는 실제로 빛이 있었다.

늪과 습지의 수위가 올라가면, 풀과 다른 식물들은 물에 잠겨 썩기 시작한다. 썩는 과정에서 메탄과 같은 가스가 방출된다. 메탄의 농도가 진하면 불꽃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번개가 칠 때 발생하기도 한다. 불이 붙은 메탄가스는 깜빡거리며 나무 사이를 휩 지나가는 불빛처럼 보이는데 이런 으스스한 현상 때문에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났다. 불 속에 산다고 여겨지는 이 유령은 도깨비불이라고 불렀다.

## 용감한 탈출



대부분의 도망노예들은 엘리자의 가족처럼 밤에 탈출해서 북극성을 따라 갔다. 도중에 그들을 **지하철도로** 안내해줄 역장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캐나다로 가는 머나먼 길을 떠나려면 강단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했다. 마음이 항상 더 편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더 짧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는 노예도 있었다.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살았던 노예 헨리 브라운은 백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쪽에 천을 댔다. 그는 비스킷과 돼지

방광으로 만든 물병(그 당시 물이 새지 않는 병을 만들던 일반적인 방식)을 넣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았다. 친구들은 이 상자의 뚜껑을 닫고 못을 박아 기차에 실어 펜실베이니아의 자유도시 필라델피아에 사는 노예해방론자 친구들에게로 보냈다. 기차로 이동하는 데는 26시간이 걸렸다. 그때부터 그는 박스 브라운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도망노예들이 숨어서 탈출하는데 이용된 컨테이너는 다양했다. 체구가 작은 어떤 아이는 아치모양의 뚜껑이 달린 트렁크 속에 숨어 디트로이트 강을 건너 캐나다 서부의 윈저(지금의 온타리오)까지 갔다. 많은 노예들이 이동하는 동안 통속에 웅크려 앉거나 관에 바짝 앉으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도착할 때가 되면 거의 질식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위장을 하는 노예들도 종종 있었다. 해진 옷을 입은 도망 노예를 찾아다니는 노예추적자들은 웨이커교도 여성을 보면 그냥 지나쳐갔다. 웨이커교도들이 쓰고 다니던 넓은 챙이 달린 보닛은 도망자들의 얼굴을 잘 가려주었다. 추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키가 작은 남자와 키가 큰 여자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기도

했다. 가장 대담하게 위장했던 사람은 남편과 함께 조지아에서 탈출한 엘렌 크레프트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했다. 실크햇트<sup>5)</sup>를 쓰고 품격 있는 정장을 입어 남부의 농장주처럼 위장하여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그녀의 남편 윌리엄은 하인역할을 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엘렌 크레프트는 오른쪽 팔을 붕대로 감아 팔걸이에 끼웠기 때문에 호텔에서 숙박부에 사인하는 일을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다.

28명을 한꺼번에 북부로 안내한 지하철도 역장도 있었다. 사람들을 모두 위장시켜 가장장례행렬을 만들어 도시를 지나갔다. 몇 명은 마차에 타고 나머지는 조문객들처럼 그 뒤를 따라 걸었다. 28명의 무리를 쫓던 노예추적자들은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장한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빠르고 과감하게 탈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돈과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노예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느리고 위험하더라도 걸어서 북부로 가는 것이었다.



---

5) 서양의 남성 정장용 모자

## 창가의 랜턴



벤은 덩불 뒤에 쪼그려 앉아 울타리가 쳐진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층에 불이 켜진 방만 제외하고 집안은 깜깜했다. 가슴이 졸여왔다. 문을 두드려 볼까 말까? 엄마가 랜턴을 찾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잘 못 알고 있는 거라면 어찌지?

벤은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렸다.

“어서 와요, 친구.”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벤은 안도감에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위층 창문에 랜턴을 두는 것은 **지하철도의** 표시였다. 이것은 안전하며 음식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구든지 루벤과 헨리가 벤을 기다리며 창문에 놓아두었던 것과 비슷한 랜턴을 만들 수 있다.

-재료-

한 쪽 끝을 제거한 깨끗한 빈 깡통

부직포용 마커

납은 타월

망치

여러 가지 크기의 못

철사

작은 초

성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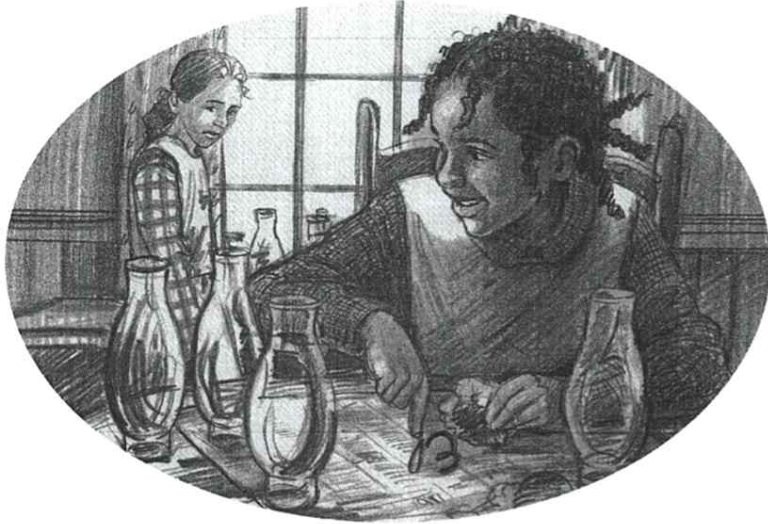
1. 깡통에 물을 채워 냉동실에 놓는다. 하룻밤 또는 물이 완전히 얼 때까지 냉동실에 둔다. 모양을 새겨 놓을 수 있을 만큼 표면이 단단하게 얼어야 한다.
2. 마커로 깡통에 단순한 문양의 그림을 그린다.
3. 접은 타월 위에 캔을 옆으로 눕혀 놓는다. 여러 가지 크기의 못을 망치로 두르려 마커로 그린 선을 따라 구멍을 낸다.
4. 깡통 윗부분에 양쪽으로 손잡이를 끼울 구멍을 낸다.
5. 뜨거운 물을 부어 얼음을 녹여 깡통에서 빼낸다. 깡통을 건조시킨다. 손잡이 구멍에 철사를 끼우고 상단 부분을 구부린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어른에게 촛불을 켜달라고 부탁해서 깡통 안에 촛농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 촛불을 끄고 촛농에 초를 똑바로 세워 붙인다. 촛농이 굳을 때 까지 기다린다.
7. 어른에게 촛불을 켜달라고 부탁해 어두운 방에서 벽에 비친 깡통에 새긴 문양을 감상한다.







# 아웃사이더



요한나는 신문 한 장을 구겨 램프 유리 등피 속에 집어넣다. 손등에 그을음이 묻었다. 그녀는 이미 얼룩져버린 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조심했지만 주변은 온통 그을음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엘리자가 앉은 테이블 위에 램프 등피가 네 개 놓여 있었다. 뿔로통해진 요한나는 엘리자가 자신의 엄마처럼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다.

‘콧노래를 계속 부르기만 해봐라.’

요한나는 이를 갈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가 드디어 멈췄다. 이틀 동안 꿈쩍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이틀 동안 엘리자는 짜증날 만큼 오지랴를 떨어댔다. 아주머니, 이거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 저거 도와 드릴까요? 그리고 못마땅한 듯한 엄마의 표정. ‘너도 좀 돕지 그러니.’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것 좀 봐!”

엘리자의 말에 요한나가 등을 돌렸다. 엘리자가 램프 등피의 안쪽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자 그을음이 손에 묻었다. 신문 위에 아무렇게나 E를 쓰고 나서 비스듬하게 l을 썼다.

“나는 이름을 쓸 수 있어.”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한나가 투덜거렸다.

웃고 있던 엘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는 달라.”

엘리자는 재빨리 손바닥으로 신문 위에 쓴 글자들을 문질러 버렸다.

“사모님께 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 사모님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또 그러면 벌을 줄 거라고 말씀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글을 배웠어?”

“막내 아가씨. 아가씨는 석판에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 소리 내어 읽으며 글을 쓰곤 했지.”

엘리자는 말을 하면서 다시 이름을 따라 썼다. 조심스럽게 i의 점을 찍고 등을 뒤로 젖혀 글자를 보면서 웃었다.

“한번은 ‘제 이름 좀 써 주세요.’라고 아가씨에게 말했어. 아가씨는 내 이름을 써주었지. 종이 위에다 말이야.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강가로 가서 모래 위에 글쓰기 연습을 했어. 연습했던 흔적은 발로 모두 지워버렸지. 그러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

엘리자는 다시 손가락에 그을음을 문혔다.

요한나는 학교 책상에 옆드려있었던 시간과, 동그라미와 선을 반복해서 연습할 때 잉크와 눈물로 얼룩졌던 공책이 생각났다. 헬리 선생님은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자로 손바닥을 때렸다. 손바닥과 눈이 빨개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자주 있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글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엘리자는 놀란 눈으로 요한나를 한 번 쳐다보고는 가늘고 길게 쓴 그녀의 이름을 보았다.

“나는 내 이름 모양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동그랗게 시작되는 내 이름이 좋아. 그 다음 이렇게 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엘리자는 l을 따라 썼다.

“내려오면서 살며시 마무리를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나는 읽을 수 있지. 바로 나야. 엘리자. 진정한 사람.”

그날 저녁 요한나는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대팻밥을 쓸면서 아빠에게 투덜거렸다.

“네, 아주머니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아빠, 엘리자는 자기 이름 빼고는 글도 못 써요.”

“엘리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잖니, 요한나.”

아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다.

“주인들은 노예들을 통제하려고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지. 노예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도 있단다.”

요한나는 불쏘시개를 담아 두는 통 안에 쓰레받기에 가득 찬 대팻밥을 버리는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엄마는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된다. 아브람씨에게서 소식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듯한 아빠의 말투에 요한나는 더 이상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아빠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자가 계속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게 테니까.

하지만 입을 조심해야하고, 온 종일 엘리자를 상냥하게 대해 주어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요한나에게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였다. 그래서 엄마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오라고 시키면 요한나는 새장에서 풀려난 새가 된 기분이 들었다.

“실 두 타래와 면 테이프.”

문을 나서며 노래를 불렀다. 직물 가게는 마을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분명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10분도 채 견지 않았을 때 수잔과 레이첼을 발견했다.

“애들아”

요한나는 친구들을 부르며 달려갔다.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특히 다음 일요일에 열리는 가든파티 소식이 궁금했다. 집에 와있는 엘리자와 벤에게 신경 쓰느라 파티를 잊고 있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자 요한나는 생각에 잠겼다. 파티에 갈 수 있겠지? 엘리자와 벤이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두 친구는 멈춰 서서 작은 시장바구니를 흔들며 요한나를 기다렸다. 친구들에게 달려온 요한나는 숨이 찼고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졌다.

“정말 오랜만이야. 가든파티를 생각하고 있었어.”

요한나는 수잔을 바라보았다.

“너희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실 거지?”

마을 사람들 모두 로드맨 홀의 정원에서 열리는 딸기차 파티에 초대 받았다. 헬리의 여학교를 이번에 졸업한 여섯 명의 여자아이들은 블레이크리씨의 새 마차를 타고 파티에 가는 특별대우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레이첼은 수잔을 한 번 쳐다보고는 시장바구니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수잔의 볼이 빨개졌다.

“있잖아. 내가... 사실을 말아야, 요한나.”

“너희 아빠가 우리를 태워주지 못하신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우리를 마차로 태워 주시긴 할 건데. 음, 캐롤린이 말이야...”

캐롤린! 또 캐롤린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নিজ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아이다.

“캐롤린이 뭐라고 했는데?”

“음, 나도 캐롤린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치마가 구겨지지 않고서야 마차에 여섯 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 게다가 너희 가족은 너희 아빠 마차를 타고 갈 테니, 우리 생각에는...”

“너희들 생각이 뭔데?”

“어쨌든 너는 가족과 함께 가면 되잖아.”

수잔이 빠르게 말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수잔은 급히 말을 멈췄다.

“저기... 나 지금 가야해. 엄마가 리본을 사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셨거든.”

입술이 부르르 떨리자 요한나는 이를 악 물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수잔과 레이첼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두 소녀가 허둥지둥 사라진 뒤 요한나는 여러 번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요한나는 뒤로 돌아 천천히 몇 블록을 걸어 던스모어씨네 직물가게로 갔다.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벽에 쿵하고 부딪쳤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거나 뒤돌아 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 중에 캐롤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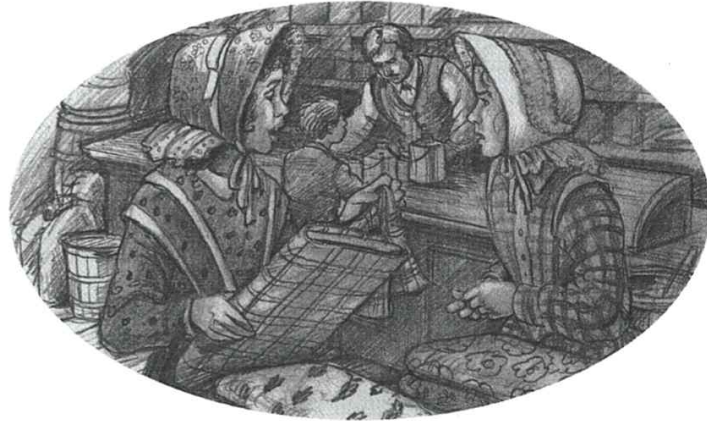
캐롤린은 옥양목 한 필을 살펴보고 있었다. 입술을 오므려 그것을 살까말까 고

민하고 있던 캐롤린이 요한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너희 집에 손님이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손님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하게 말하면서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야?”



“이런 시시한 소문을 어디서 들은 게 뭐가 중요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마을에 비밀 같은 건 없어.”

요한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캐롤린의 심술궂은 말을 하면 한 번도 재치 있게 넘어가지 못했다. 캐롤린이 말한 손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한 번 떠보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엘리자와 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걸까?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캐롤린은 계속해서 높은 톤으로 짤짤맞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항상 옷 모으기 행사에 참여하셔. 하지만 요한나, 그런 사람들을 집에 있게 하는 건 말이야. 우리 엄마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바로 이 말 때문이었다. 요한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캐롤린이 뒤돌아 가버렸다. 캐롤린은 가게 입구로 미끄러지듯 걸어가면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참, 수잔이 네게 마차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서? 여섯 명이 마차에 다 타는 건 말도 안 돼. 네가 내 말을 이해할거라고 생각해.”

요한나는 이를 악물었다.

“제대로 이해했지. 아주 제대로!”

문이 닫히자 요한나는 카운터에 손으로 잡아 몸을 가누었다. 어떻게 감히 캐롤린! 수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요한나를 빼자는 캐롤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집에 가기 전에 잊어버리자. 혼잣말을 하던 요한나는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야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엄마가 사오라고 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가게를 나온 요한나는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 몇 주 동안 마차를 타고 가든파티에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여섯 명이 새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와 어울리는 양산을 쓰고 이웃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우아하게 마차에 오르는 상상을 했다.

불쾌할 정도로 너무나 다정하게 웃던 캐롤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재는 우리랑은 정말 달라.’

요한나는 캐롤린이 수잔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재네 아빠는 고작 통제조업자야. 그런데 지금 재네 집에 노예가 살고 있대.’

요한나는 캐롤린이 속물이라고 생각났다. 거만한 속물. 알 게 뭐야. 가든파티가 다시 생각났다. 만약... 요한나는 뭔가를 생각하다 말았다. 엘리자와 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

요한나는 엘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다. 쫓아오는 개들에게서 도망친 이야기, 노예추적자들이 바로 눈앞에 지나가는 길을 걸었던 이야기 외에도 엘리자가 더 이상 주인집 아이들과 놀 수 없게 된 이야기, 여섯 살이 되자 안주인이 부엌일을 거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결정한 이야기,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한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요한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터덜터덜 걸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분명.

요한나는 집으로 황급히 뛰어갔다. 쿵을 까던 엄마와 엘리자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는 요한나를 올려 보았다.

“왜 이리 야단이야?”



엄마가 물었다.

요한나는 찬장 서랍을 훑 당겨 열었다. 깔끔하게 잘 펴서 개어둔 행주를 들춰 학교에서 쓰던 석판과, 쓰기교본, 읽기교과서를 꺼냈다.

“엘리자.”

요한나는 눈을 크게 뜬 채로 자신을 바라보는 엘리자를 향해 돌아섰다.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줄까?”

엘리자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읽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엘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얼굴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천천히 말을 시작하는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 읽고 쓰는 자유



엘리자가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남부 주는 노예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유를 찾아 도망치던 엘리자는 지도를 읽거나, 마을이름이나 표지판에 적힌 도로명칭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차 시간표를 보거나 벽보에 붙은 그녀의 수배전단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인들이 바라는 대로 글을 읽지 못하는 노예들에게 도망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왜 속박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는 의견이나 주인들에게 대항하자는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없었다.

법을 따르지 않고 노예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은 감옥살이를 했다. 이런 법이 있었지만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운 노예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주인집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엿듣거나 그 아이들에게서 직접 배웠다. 교육을 받은 노예들은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은 많은 노예들은 설교가나 교사가 되어 새로운 생각을 전하고, 동료 노예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장려했다.

## 프레드릭 더글라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목숨을 걸고 흑인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매릴랜드에 살았던 어린 시절 그는 안주인에게 읽는 법을 배웠다.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주인은 아내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받은 교육으로 프레드릭은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그는 자주 매를 맞기도 했다.

스물한 살 때 가까스로 탈출한 그는 더글라스라는 성을 갖게 되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모임에 나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명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북극성이라는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신문을 통해 흑인들에게 ‘용감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투표의 권리를 얻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라고 촉구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자신의 집을 지하철도의 역으로 사용했다. 많은 도망노예들은 비밀 방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그의 도움을 받아 온타리오 호수를 건너 캐나다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그에게 강적들이 나타났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캐나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1859년 세인트캐사린즈에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노예제에 반대하는 글을 쓰고 연설했다. 노예제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흑인들이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흑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입증했다.



## 이야기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예들은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그들의 역사를 전달하고, 희망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흑인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나 인간이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야기에 동물들이 많이 등장시켰다.

밤이 되면 모닥불 주위나 작고 어두운 오두막에 둘러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노예들은 그들이 살고있는 새로운 나라에 알맞게 이야기를 조금씩 바꿨다. 아프리카의 이야기에는 코끼리, 사자, 비단뱀, 거미 등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이런 동물들이 곰, 여우, 너구리, 토끼 등으로 바뀌었다. 존중의 표현으로 이야기꾼들은 언니, 오빠, 이모, 삼촌 등의 호칭을 사용해서 동물들을 불렀다. 작지만 크고 힘이 센 동물들보다 지혜로운 토끼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인기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었다.

### -토끼와 타르인형-

여우는 배가 고팠다. 토끼를 넣고 끓인 스투를 생각하니 입에 침이 고였다. 토끼 스투를 먹어야겠어 여우가 때를 기다려 토끼를 잡으면 토끼는 항상 여우를 속여서 도망쳐버렸다.



이번에는 기필코 토끼를 잡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테레빈유를 섞은 타르로 아기 모양 인형을 만들었다. 타르인형에 모자를 씌우고 길가에 내려놓았다. 곧 토끼가

깡충깡충 인형에게 다가갔다. 여우는 바닥에 엎드렸다.

타르 인형을 본 토끼가 점잖게 인사했다.

“안녕!”

하지만 타르인형은 그대로 앉아 있었고, 여우는 바짝 엎드려 있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네!”

토끼는 인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타르 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우는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화를 잘 내는 토끼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

“귀가 멀었나?”

토끼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리 지른다!”

그러나 타르 인형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여우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다.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토끼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주지.”

퍽! 토끼는 인형의 한쪽 머리를 후려쳤다. 토끼의 주먹이 인형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우는 혼자서 킁킁 거렸고, 타르 인형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 손을 놓지 않으면 또 때린다!”

토끼가 소리쳤다. 퍽! 토끼가 다른 손으로 인형을 후려쳤다. 다른 손도 인형에 달라 붙어버렸다. 타르 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우는 몸이 간질간질 거렸다.



“내 손 놓으라고!”

토끼는 소리치며 타르인형을 발로 찼다. 곧 두 다리와 머리가 인형에 딱 달라붙어 버렸다.

그 때 여우가 흉내지빠귀처럼 순진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안녕, 토끼야. 오늘 아침은 어째 아주 거만하다?”

여우는 바닥을 구르면서 웃고 또 웃었다.

“이번에는 잡았다. 오랫동안 건방지게 굴었지만 이번에는 독안에 든 쥐야. 이제 불을 지펴 너를 끓여 스투를 만들 거야.”

곤경에 처했음을 깨달은 토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겸손하게 말했다.

“원하는 대로 나를 끓여 드세요. 하지만 부디 저를 저 가시덤불 속에 내던지지는 말아주세요.”

여우가 가시덤불을 쳐다본 후 토끼를 봤다.

“너를 끓여먹는 건 어렵겠어.”

여우가 말했다.

“너를 그냥 불에 구어 먹어야겠어.”

“원하는 대로 나를 구워 드세요. 하지만 부디 제발 저를 저 가시덤불 속에 내던지지는 말아주세요.”

여우는 나무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를 구워먹는 건 어렵겠어.”

여우가 말했다.

“너를 그냥 밟아버릴 거야.”

“원하는 대로 나를 밟아버리세요. 하지만 부디 제발 저를 저 가시덤불 속으로 내던지지는 말아주세요.”

여우는 토끼에게 속았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여우는 땅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토끼를 쳐다본 후 가시덤불을 보았다.

“히히, 토끼 요놈.”

여우가 말했다.

“이번에는 너를 혼내주고야 말테다.”

여우는 토끼의 다리를 잡고 가시덤불 한 가운데로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토끼

가 어떻게 되는지를 감상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여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토끼가 언덕 위에 앉아 머리빗으로 털에 붙은 타르를 떼어내고 있었다.

“히히, 여우야.”

토끼가 소리쳤다.

“나는 가시덤불에서 나고 자랐어. 그건 몰랐을 거다!”



## 이야기꽃

농장에서 지낼 때 엘리자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일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마치고나면, 노예들은 불가나 어두운 오두막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로 만들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노예집단의 역사와 지혜가 전해졌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 또는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과 집단을 이루게 된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역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공유한다.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소리 내어 말하거나 민담이나 이솝우화 등 옛이야기를 전할수도 있다. 누구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 적어도 두 번 이야기를 읽거나 연습 삼아 소리 내어 말해본다.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2. 이야기를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 5~6 단계로 나눈다. 이것은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기반이 된다. 토끼와 타르인형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우는 타르 인형을 만들어 토끼를 기다린다.



② 토끼가 타르 인형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③ 화가 난 토끼가 타르 인형을 때린다.



④ 숨어 있던 여우가 나타나 토끼를 요리하려고 한다.



⑤ 토끼는 여우를 속여 달아난다.

3.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줄 동사들을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던지다” 대신에 “내팽개치다”나 “내동댕이치다”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4.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서로 다르게 내어 소리 효과를 더하거나, 소리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 예를 들면 뱀이 움직이는 소리는 ‘스’라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소리를 길게 끌어 뱀이 내는 소리를 표현할 있다.
5. 연습을 한다. 이야기를 외우지 말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재잘재잘 연습한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연습한다.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거울을 보면서 연습한다. 손동작과 이야기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얼굴 표정을 이용한다.
7. 목소리로 이야기의 재미를 더한다.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이야기 한다. 큰 소리, 부드러운 소리, 높은 톤, 낮은 톤 등 상황에 맞게 목소리에 변화를 준다. 흥미진진한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야기를 잠시 멈춘다.
8.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선택한다. 청중들이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도록 한다. 꿈을 꾸는 듯한 분위기를 위해서 불을 약하게 켜다. (유령 이야기를 할 때는 불을 끈다.) 어떤 이야기꾼은 촛불을 끄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9.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한다. ‘옛날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 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와 같은 말로 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하게 되었다’라든지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해 이야기가 끝났음을 알려준다.

## 노예추적자!



요한나는 통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을 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렇게 서서 작업장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다. 신선한 나무냄새가 나면 아빠와 오빠가 대패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자 오빠가 고개를 들었고, 쓱쓱 대패질 하는 소리가 멈췄다. 오빠에게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구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 오빠는 벌써 가죽 앞치마에 붙은 대패밥을 털어내고 있었다.

작업장 앞쪽에는 반쯤 완성된 통의 테두리를 다듬고 있는 아빠와 작업대에 팔꿈치를 붙이고 서있는 얼굴이 길고 애꾸눈을 한 어떤 남자가 있었다. 그를 본 요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숨겼다.

“숨씨가 좋구려.”

그 낯선 남자는 느릿느릿 말했다.

“마차에 실으려고 밖에 가져다 놓은 통들을 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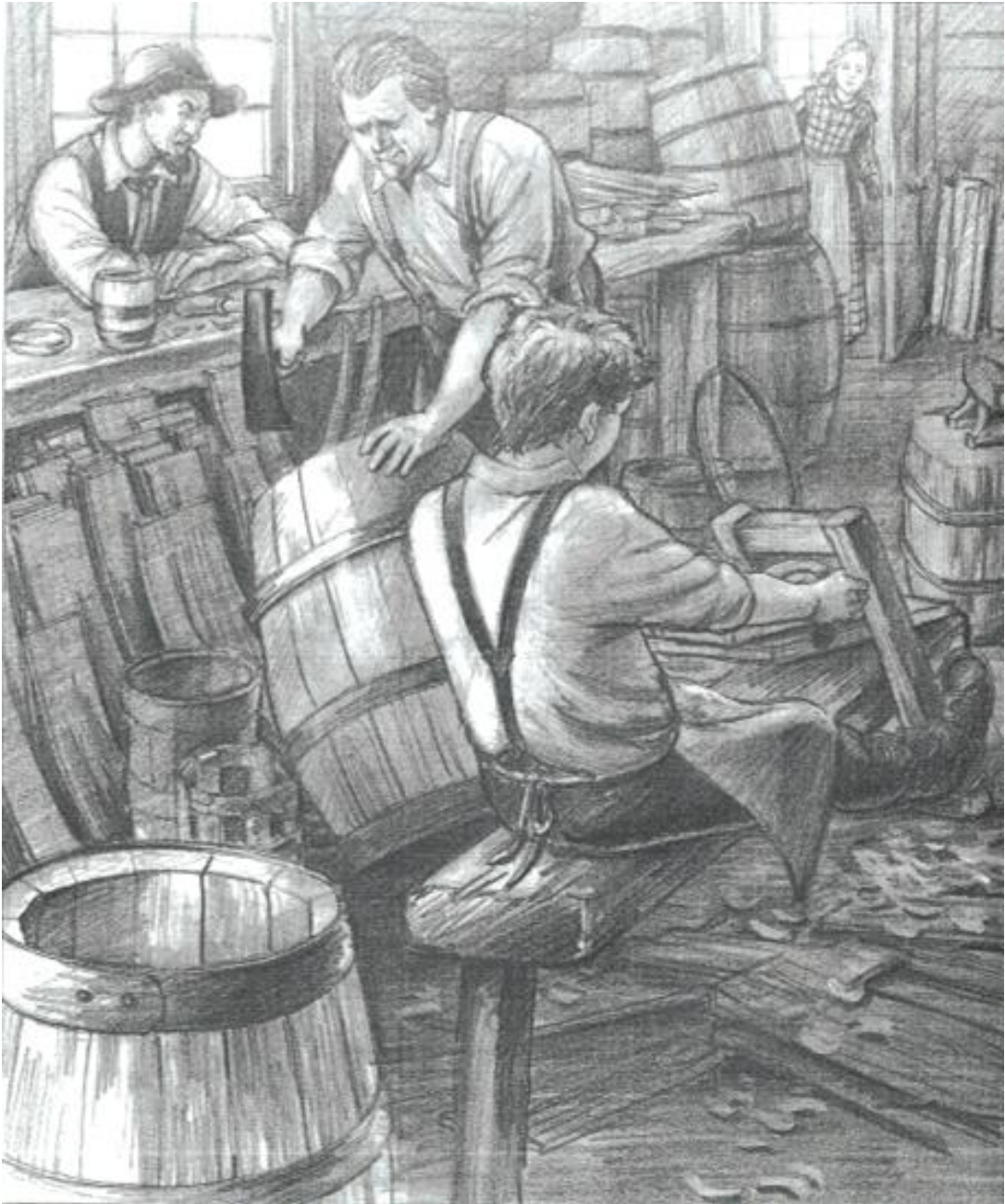
손바닥 크기의 대패가 쓱쓱 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조금 더 있을 생각이요.”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작업장을 둘러보다 집 안으로 이어지는 문에서 시선을 잠시 멈췄다가 통이 높게 쌓여 있는 벽 쪽을 바라봤다.



“사실은 말ियो.”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정부가 필요하오. 식사 준비와 청소를 좀 해주면 돈은 섭섭지 않게 줄 생각이오. 아마 바느질거리도 좀 있을 거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없소?”

아빠는 기울어진 통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세운 후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 보았다.

“여기는 통을 만드는 작업장이요. 가정부를 찾는 거라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 시오.”

요한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빠는 단 한 번도 손님에게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한 적이 없었다. 아빠는 왜 이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일까?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소. 그냥 물어봤을 뿐이오.”

그 남자는 다시 한 번 작업장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요.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요.”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

“꼭 찾아야하오.”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그는 아쉬운 듯 작업장을 빠져 나갔다. 문이 닫히자 요한 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만약 저 사람이...”

“요한나, 앞서갈 거 없다.”

아빠가 말을 막았다.

“기다려 보자꾸나. 그나저나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지, 응?”

아빠는 작업실 뒤쪽을 쳐다보았다. 탐은 이미 작업실을 나가고 없었다.

“이 일로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걱정은 말자꾸나.”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아빠가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에 오빠와 함께 아브람에게 통을 배달해주러 퀸스톤으로 갈 거야. 그 러니 엘리자, 창밖을 잘 살펴보고 혹시 누가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면 서둘러 이층으로 올라가거라. 나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요.”

아빠의 말에 엄마가 동의했다.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너희들은 딸기상자를 모두 만들 거라. 곧 사용하게 될 거야.”

딸기철이구나! 요한나는 마음이 아팠다. 몇 개월 동안 딸기차를 마실 시간을 기다려 왔는데 거만한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나빠졌다.

엘리자는 탐이 작업장에서 대패질한 얇은 나무판자를 정리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자유의 기차가 오네.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네. 덜컹덜컹 바퀴 소리가 들리네.”

요한나는 엘리자가 목소리를 깔고 기차소리를 흉내 내며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웃었다.

“기차에 올라타라, 꼬마야. 기차에 올라타라...”

요한나도 노래를 불렀다. 벤이 온 뒤로 엘리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오빠가 요한나의 삼촌 덕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요한나의 집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엘리자는 더없이 행복했다.

“자리는 얼마든지 있단다.”

엘리자가 큰 소리로 노래했다.

요한나와 엘리자가 딸기상자를 너무 높게 쌓는 바람에 쿵하고 부엌문이 닫히자 상자들이 흔들거렸다. 아직 접지 못한 널빤지들을 주워 올려놓은 두 소녀는 부엌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방으로 뛰어갔다. 잠시 동안 문에 서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요한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언니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우리 집에 왜 온 거지?”

그 때 엄마가 다급히 들어왔다.

“지금 나가봐야겠구나! 언니네 아기가 수두에 걸렸어. 너희 둘만 두고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언니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구나.”



“우리 걱정은 마세요.”

요한나가 말했다.

“어서 다녀오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상자나 마저 만들게요.”

요한나의 말에 안심이 된 엄마는 언니네 집으로 갔다.

두 소녀는 말없이 상자를 접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

요한나가 입을 열었다. 요한나는 입으로 가시가 박힌 검지를 빨았다.

“우리 차 마시자. 여기에 있어. 내가 가지고 올게.”

“기차에 타세요... 기차에 타세요...”

요한나는 달그락거리며 머그잔과 머핀 굽는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레인지에 올려놓은 주전자들 가져 오려고 뒤돌아서는데 창밖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의 그림자였다. 어떤 남자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한번 씩 웃고 사라져버리자 요한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작업실에서 본 그 남자였다!

요한나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지만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문이 확 열렸다.

그 남자는 ‘실례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누구세요?”

요한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죠?”

“안녕, 아가씨.”

얇은 입술에서 시작된 미소가 까칠하게 수염이 자란 볼까지 퍼졌다.

“이 집에 와 있는 어린 손님에게 전해 줄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요.”

방 쪽으로 휙 돌아보는 요한나를 본 그 남자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씩 웃는 그의 입술 사이로 들쭉날쭉하게 난 누런 이가 보였다.

“그 아이의 엄마 소식을 가지고 왔어.”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 엄마는 지금 캐나다에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요한나는 그 남자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눈살을 찌푸렸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아이가 여기에 있는지 몰랐지. 길에서 내 친구 아브람을 만났어. 그가 저 아이에게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걱정 마시

오. 내가 지금 그 마을에 가겠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좋구려. 그 어린 여자 아이를 제가 가서 데리고 오리다.’라고 말했지.”

그는 요한나를 보며 또 한 번 히죽이 웃었다.

“이제 네 친구를 불러주면 내가 그 애를 데려다주마.”

“뭔가 착각하고 있군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와. 당장!”

겉이 난 요한나는 뒤를 돌아 도망쳤다. 그 남자가 요한나의 팔목을 잡자 요한나는 거세게 저항하면서 팔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세게 물어버렸다.

“빌어먹을!”

욕을 뱉은 그는 엘리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나를 가게 내버려 두었다. 엘리자가 고개를 숙이고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머리로 그를 세게 받아버리자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고, 현관문턱에 걸려 문 밖에 대자로 넘어졌다. 요한나는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꽂고 걸쇠 두 개를 모두 걸어 잠갔다.

안도감에 다리의 힘이 풀린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예추격자야?”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아?”

엘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느낌이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나. 그나저나 아브람씨가 그를 왜 여기로 보냈을까? 너희 아빠가 오늘 통을 가져다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요한나는 살금살금 창문으로 걸어갔다. 노예추격자가 지붕을 바라보며 마당에 서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직도 저기에 있어. 가지 않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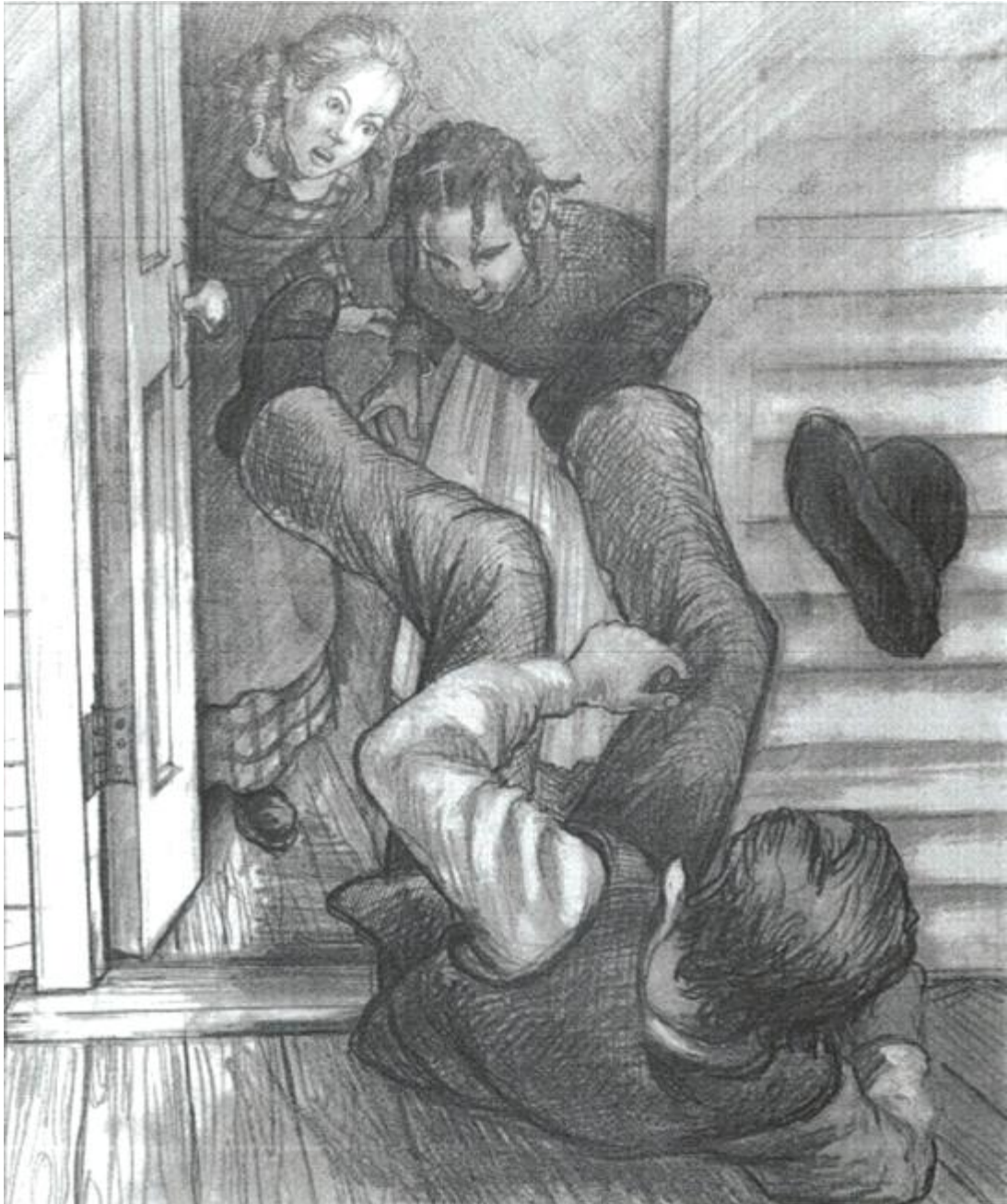
요한나는 엘리자 쪽으로 몸을 반쯤 돌려 말했다. 하지만 다시 밖을 내다봤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요한나는 그가 여기저기 살피면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 뒤쪽에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업실 문은 잠겨있었고, 작업장 한 쪽 벽에 창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작업장 외벽에 비



스듬히 지어진 창고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물론 그가 감히 현관문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요한나가 거실로 뛰어갔고, 엘리자가 그 뒤를 따라갔다.

거실 문도 잠겨 있었다. 요한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거실문의 걸쇠를 걸고 거실과 창고를 연결하는 문을 확인했다.

요한나는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 말했다.



“여기서 빠져 나가야겠어. 엄마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일거야. 우리가 소리 지르면 마을 사람들이 들을 거야.”

물론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세인트캐사린즈의 변두리에는 집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엘리자는 요한나를 꼭 붙잡고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현관문 손잡이가 잠깐 덜컹거리더니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으로 그 남자의 그림자가 훑 지나갔다.

“저 사람 집 주위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요한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자, 내 말 잘 들어. 저 남자가 뒤쪽으로 가면 현관문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가 뒤쪽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겠어. 저 남자가 밖에 있으니 집 안이 안전해.”

“쉿, 조용해봐!”

요한나가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선가 유리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두 소녀는 소리에 귀를 쫓긋 세운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집안을 조용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에 두 소녀는 깜짝 놀랐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작업장으로 들어왔어!”

요한나는 숨이 턱 막혔다. 침묵을 깨뜨리는 쿵 하는 소리와 욕설에 엘리자는 침입자가 창고에서 뭔가에 걸려 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걸쇠로 대충 잠겨 있는 거실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면 끝장이다.

“도망치자!”

요한나는 숨이 턱 막혀왔지만 엘리자는 벌써 현관문의 아래쪽 걸쇠를 세계 잡아당기고 있었다. 요한나는 그가 거실 문을 부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위쪽 걸쇠를 잡아당겼다. 흔들거리더니 걸쇠가 풀렸다. 이제 키로 열기만 하면 된다. 키 구멍에 키를 넣고 돌리는데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뒷문이 열렸다.

“뛰어! 뛰어!”

요한나가 엘리자를 앞으로 밀면서 소리쳤다. 현관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요한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몸을 비틀어 그 손 아래로 빠져나와 엘리자를 따라 뛰었다. 둘은 길가로 나왔다. 요한나가 앞서서 뛰었다. 요한나를 따라 쫓 먹던 힘을 다해 뛰던 엘리자가 깊이 파인 마차 바퀴자국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잡았다!”

노예추적자가 엘리자의 발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기자 엘리자는 어찌해야할지 몰랐다. 요한나가 덤벼들어 주먹으로 그 남자를 때렸다.

“놓아줘요. 놓아 주라고. 놓아 주란 말이에요!”

요한나가 소리쳤지만 말발굽 소리와 덜컹거리는 마차 바퀴소리에 요한나의 목소리가 묻혔다. 노예추적자가 갑자기 엘리자를 밀치는 바람에 두 소녀는 흙탕길에 넘어지고 말았다. 몸을 일으키던 요한나는 움직이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는 노예추적자를 덮치는 오빠의 모습을 봤다. 쿵하고 바닥에 넘어진 두 사람은 서로 엉겨 떼굴떼굴 굴렀다. 요한나가 일어섰을 때 아빠가 두 사람을 간신히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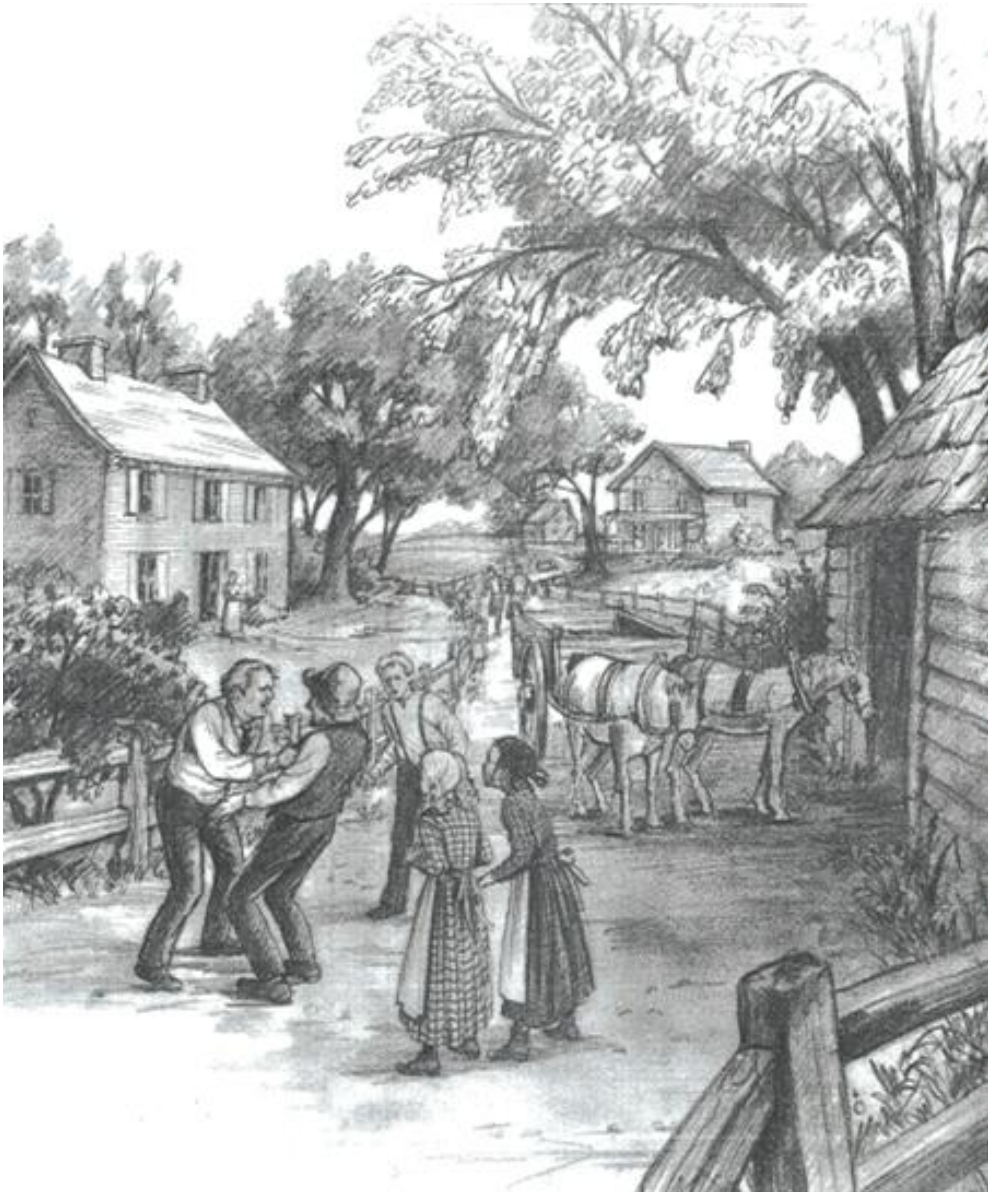
어냈다. 이웃들이 몰려들었다. 곧 여자들 몇 명이 길가에 웅송거리며 모여 탐이 그 남자의 팔을 등 뒤로 젖혀 돌려 넘기는 모습을 얼빠진 듯이 구경했다.

아빠는 노예추적자의 멍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내 말 자 듣게, 친구.”

화가 난 아빠는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 있을 수 없어. 노예를 밀거래 하는 불한당들도 마찬가지로. 목숨이 아깝거든 다시는 강가에 얼썌도 하지 말라고. 절대로!”



아빠는 마지막으로 노예추적자의 멍살을 잡아 흔들더니 노예추적자를 들어 한 바퀴 빙 돌리고는 건갑골 사이를 세게 밀쳐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몇 걸음 휘청거리며 걷다가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면서 한 번씩 어깨너머로 뒤에 서있는 사람들을 노려보다가 여러 번 발을 헛디뎠다.

아빠는 두 소녀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엘리자가 저 사람을 머리로 들이받았을 때 넘어지는 걸 보셨어야 했어요.”

요한나가 말했다.

이 말에 엘리자가 웃었지만 노예추적자가 뒤를 돌아 주먹을 내미는 모습에 이내 마음이 불안해졌다.

“저 사람이 다시 오면 어찌지?”

“저 사람과 그의 친구들을 감시할 사람들을 배치시킬 거야.”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맞설 준비가 됐다.”

맞았다. 요한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엘리자와 자신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 노예추적자



“저 애는 왜 숨어있어야 하는 거죠?”

재봉틀이 있는 방에서 엘리자를 처음 본 날 요한나는 이렇게 물어봤었다.

엄마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보다 더 자주 일이 생기는 것 같구나.”

엄마가 말했다.

해방노예들은 안전이 보장된 캐나다에 있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했다. 1830년 찰스 베이는 도망노예 앤드류를 윈저 인근에 있는 그의 농장에 고용했다. 앤드류의 주인은

도망친 그를 캐나다까지 쫓았고 다섯 명의 남자를 보내 그를 납치했다. 그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앤드류를 잡아가기 위하여 일요일 아침에 디트로이트 강을 건넜다. 노예추적자를 본 찰스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노예추적자들에게 붙잡힐 뻔 했던 이 사건으로 국경 근처에서는 앤드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깨달은 찰스는 그가 캐나다로 떠날 수 있도록 경비를 챙겨 주었다.

흑인 백인할거 없이 추적자에게 쫓기는 노예를 구해준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다. 1853년 캐나다 웨스트(지금의 온타리오)의 채텀 거리에서 한 소년이 노예추적자에게 붙잡혔다. 소년의 울음소리를 들은 메리 앤 셔드라는 흑인 기자가 추적자들에게서 소년을 구출해서 법원으로 함께 달려가 종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



들은 노예추적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캐나다에서 노예제도는 위법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도망노예들을 따라오는 노예추적자들은 무력보다는 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 도망 노예를 하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속임수로 노예들을 속여 미국으로 데려갔고, 미국으로 돌아간 노예들은 주인들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왜 노예추적자들은 애써 이런 일을 했을까? 돈! 노예들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인들은 노예추적자들이 노예를 데리고 오면 큰 보상을 해주었다. 주인은 재봉과 요리 솜씨가 뛰어난 레아를 1000달러를 받고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돈을 벌 수 있었다. 어린 벤과 엘리자는 주인집에서 몇 년 동안 힘든 일을 했다. 주인이 두 아이에게 각각 500달러의 보상금을 걸었는데, 그 당시 교사 연봉이 400달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유혹이었다.

돈은 불한당들을 유혹했다. 미국의 노예추적자들은 개와 함께 총을 가지고 다니며 도망노예들을 추적했다. 도망노예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적자들은 산탄을 사용해 사냥감에 부상을 입히더라도 죽지는 않게 했다. 칠면조 가죽을 넣은 주머니를 조끼 안에 붙인 똑똑한 노예도 있었는데, 이것이 방탄조끼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예추적자들은 부도덕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배전단에 올라온 노예가 아니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결국 해방노예들이 납치되어 노예로 팔렸다. 캐나다 국경 근처가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많은 도망노예들은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감시하고 있는 세인트캐서린즈나 토론토와 같은 내륙지역으로 갔다. 그러나 큰 보상은 노예추적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1863년까지 자유노예든 도망노예이든 모든 흑인들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엘리자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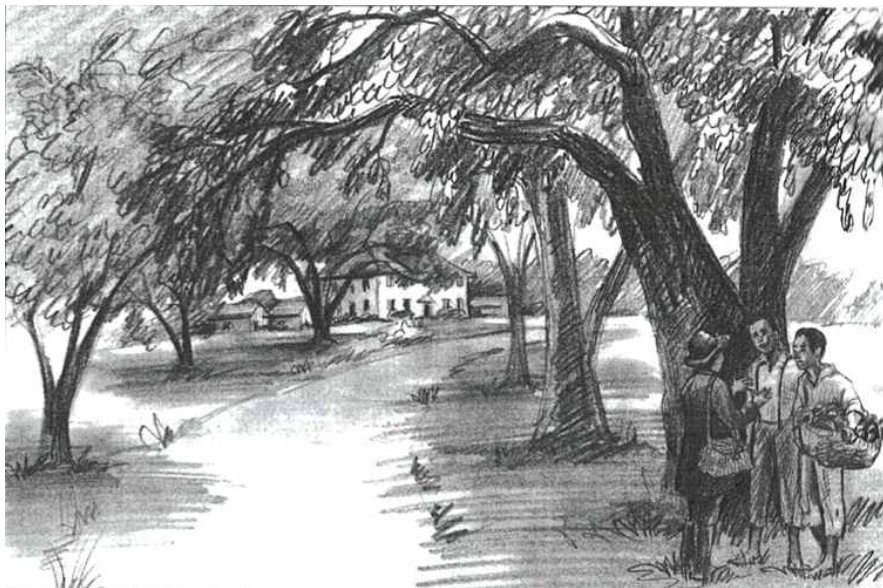


## 알렉산더 로스

탈출하는 노예들은 백인들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많은 백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캐나다 웨스트의 벨빌에 살고 있었던 의사 알렉산더 로스는 많은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다. 그는 가족들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해리엇 비처 스톤의 「톰 아저씨의 모험」을 읽으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로스 박사는 노예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남부 주를 돌아다녔다. 들새관찰을 구실로 노예 주인들에게 농장과 숲을 둘러봐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예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캐나다로 도망치는 탈출 경로를 자세히 알려줄 테니 비밀 모임에 나오라고 말했다. 도망을 결심한 노예에게 돈, 나침반, 칼 그리고 먹을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때때로 로스 박사는 직접 그들을 안내하기도 했다. 어떤 흑인 여성은 박사의 종으로 가장해서 도망쳤다.

로스박사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갔다. 그는 흑인 공동체가 캐나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흑인들의 겪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노래

“엄마가 항상 노래를 부르셨거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래를 알고 있냐는 요한나가 묻자 엘리자가 대답했다.

“노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었지. 그런데 가끔 엄마가 밤에 부르던 노래는 엄청 슬펐어.”

노예들은 노동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땀별 아래에서 팽이질을 하거나 목화 더미를 배로 나르는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노예들끼리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 드럼 연주는 금지되었다. 하지만 노예들은 익숙한 리듬에 가사를 붙여 불렀다. 고래 배 속에 갇힌 요나에서부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던 이스라엘 노예들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일요일에 농장 예배당에서 들은 성경구절을 인용했다. 이런 흑인 영가는 고단하고 보람 없는 그들의 삶에 희망과 위안이 되어주었다.

### 모세여 가주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Moses, Lead Me Out' (모세여 가주오). It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in a 4/4 time signatur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major).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under the notes. The first staff has four measures with lyrics: '이 집 트 로 가 서 파 라 오 예- 게-'. The second staff has three measures with lyrics: '사 람 들 을 풀 어주라 전 하 오 모 세 여'.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notes: Gm, Cm, D, Gm, Dm, D, Gm.

이 집 트 로 가 서 파 라 오 예- 게-

사 람 들 을 풀 어주라 전 하 오 모 세 여

## 기차에 타거라

A7 D Bm A

기 차 에 올 라 타 라 꼬 마 야 기 차

A A7 D Bm A E7 A

에 올 라 타 라 자 리 는 얼 마 든 지 있 단- 다

## 경매대

Am Am G

*mf* 경 매 대 는 싫 어 요 더 이상 더 이상

Am F Am E Am

사 람 들 이 떠 났 네 모 두 떠 났 네



# 친구들



요한나. 엘리자는 거실 벽에 걸린 그림에 쓰여 있는 글씨를 손으로 따라 썼다.

“요한나라고 쓰여 있어! 실로 이름을 새겼구나.”

“응, 샘플러<sup>6)</sup>라고 하는 건데 바느질과 글쓰기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어. 이건 잘 못했어. 알파벳과 내 이름 그리고 날짜를 새기고 나서 실증이 나버렸어. 우리 엄마가 하신 것을 좀 봐.”

요한나는 자신 샘플러 옆에 걸린 더 큰 샘플러를 가리켰다.

“엄마는 여섯 살 때 성경구절도 연습했대. 이 부분을 읽어줄게.”

“내가 읽어 볼게. 나도 읽을 수 있어!”

하지만 십자수로 작게 새겨진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엘리자의 실력으로는 읽기 어려웠다. 엘리자는 잠이 날 때마다 요한나의 읽기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석판에 쓰거나 읽는 연습을 했다. 오빠가 요한나의 집에 온 이후로 엘리자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오빠도 읽기를 배우고 있었다. 벤은 이해가 빠르고 엘리자는 끈

6) 다양한 무늬의 바느질 견본을 한 장의 천에 만든 자수, 레이스 작품. 원래 자수나 레이스의 초보자가 배우기 위해 만든 것인데 감상용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기가 있었다.

“아가씨가 글쓰기 연습하는 것을 봤어. 만약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가씨와 내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

석판에 글을 쓰고 있던 벤이 고개를 들었다.

“책을 읽는 건 좋은 거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배우는 게 더 좋아. 명심해.”

요한나는 벤의 말이 신경 쓰였다. 세인트캐사린즈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을 떠올렸다.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주위에 아담하고 깔끔하게 지은 집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걸까?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으나, 요한나는 언젠가 캐롤린과 그녀의 엄마가 분명 오린 브라운씨를 봤는데 멈춰 서서 인사하지 않고 길을 건너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 덕분에 신발을 고칠 수 있어 좋았지만 길거리에서 만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엘리자는 일상 단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써보고 싶어.”

엘리자는 요한나가 정사각형 모양의 갈색종이에 쓴 글자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갑자기 멈추더니 그녀는 석판에 정성스럽게 그 글을 따라 썼다.

“엄마는 곧 오실거야.”

요한나는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다. 잭슨부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지? 엘리자와 벤은 어떻게 될까? “오실거야”라는 말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커다란 눈물방울이 석판 위로 떨어졌고 엘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식탁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엘리자의 어깨가 흔들렸다.

엘리자에게 다가간 요한나는 울음을 삼키느라 들쭉거리는 엘리자의 몸이 말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자는 두려움에 소리쳤다.

“엄마! 엄마.”

요한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요한나의 엄마가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엘리자를 한 번 바라보고는 두 팔로 엘리자를 끌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달랬다.

“있잖니, 애야.”

엄마는 엘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브람씨가 약속했잖아요. 약속 했는데....”

엘리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엄마는 오지 않겠죠?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문이 열렸고 요한나의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놀란 눈으로 엘리자를 쳐다본 후 아내를 봤다.

“여보, 뭐라도 좀 해야겠어요.”

엄마가 말했다.

“엘리자와 벤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도록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엘리자는 엄마의 팔에서 조용히 나와 각자 긴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식탁 의자에 반듯하게 앉았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엘리자는 손가락에 떨어진 눈물을 문지르며 말했다.

“은혜를 잊은 건 아니에요.”

엄마는 엘리자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런 생각 말거라. 우리는 네가 함께 있어서 기쁘단다. 그저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뿐이란다. 우리는 엄마를 찾을 수 없구나. 전적으로 아브람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단다.”

그녀는 뒤돌아 남편을 보았다.

“여보.”

“탐에게 아브람씨에게 메시지를 받아오라고 해야겠소. 잭슨 부인에 대한 소식을 뭐든 알아내야겠어. 이 아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준비를 해야지.”

요한나는 아빠를 뻔히 쳐다보았다. 엘리자가 떠나야한다고? 그랬다. 노예추적자



는 도망쳤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 요한나는 엘리자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이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엘리자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요한나의 아빠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엘리자는 요한나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다.

“엘리자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거라.”

요한나의 엄마가 당부했다.

“네 엄마 소식이 없을지도 모르잖니.”

요한나는 나쁜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엘리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요한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큰 소리로 글을 읽었다. 하지만 두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읽기책을 내려놓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엘리자가 말했다.

“그러면 걱정이나 탄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딸기를 따러 가는 게 어땠겠니?”

요한나의 엄마가 제안했다.

“길 건너편 울타리 구석에서 저녁식사 때 먹을 정도는 딸 수 있을 거야. 그곳에 서는 집이 보인다. 혹시 모르니 종을 가지고 가거라.”

요한나는 불평을 하고 싶었다. 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우습게 보일게 분명했다. 그러나 노예추적자가 떠오른 요한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는 딸기상자를 나르는데 사용하는 밭이 평평한 마구니에 조용히 종을 집어넣었다.

“세 박스면 오늘 저녁식사 때 충분할거야.”

엄마가 말했다.

“보닛을 꼭 챙겨라. 날씨가 덥구나.”

엘리자는 문 밖으로 춤을 추듯 나갔다.

“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

엘리자는 요한나가 아침에 이불 상자에서 가져다준 파란색 체크무늬 치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치마를 보며 기뻐하는 엘리자의 모습에 요한나는 치마를 도로 집어넣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가장 좋아하는 치마라고 말하지 말자고 생각하다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앞치마를 하면 괜찮을 거다.”

엄마는 이 말만 하고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두 소녀는 길을 떠나는 벤에게 손을 흔들었다. 벤은 마차에 통을 실었다.

“다른 곳에는 가면 안 된다.”

아빠는 벤에게 주의를 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아.”

엘리자는 요한나를 따라 길을 가로질러 걸으며 말했다.

“풀 냄새를 좀 맡아봐. 햇살이 비추고 벌들이 웅웅거리는 이곳에서는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딸기를 찾아보자!”

“이쪽 울타리에 딸기가 많이 있을 거야. 이쪽에서 따자.”

삼나무 울타리가 길과 목초지 사이에 구불구불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두 소녀는 울타리를 넘어갔다.

“이 목초지는 수잔네 아빠 땅이긴 한데, 딸기를 따다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딸기다!”

엘리자가 허리를 굽혀 딸기를 따기 시작했다.





“딸리는 울타리가 구부러진 부분에 잘 숨어 있더라. 여기 딸기는 단단하고 달콤해.”

요한나와 엘리자는 서로 다른 울타리 아래에서 딸기를 따다. 곧 요한나의 딸기 상자에 작은 딸기들이 가득 찼다. 너무 많이 익은 딸기는 손으로 만지면 찌부러졌다.

요한나가 손가락에 묻은 딸기를 핥아 먹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딸기 같이 따도 되니?”

벌떡 일어선 요한나는 울타리 건너에 서있는 캐롤린과 눈이 마주쳤다.

“뭐야!”

캐롤린의 미소가 사라졌다.

“너였어?”

울타리 아래쪽을 살펴보던 캐롤린은 조금 떨어진 곳에 파란색 체크무늬 옷을 입고 웅크려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수잔인 줄 알았어. 여기는 수잔네 아빠 땅이니깐.”

요한나는 어깨너머로 엘리자를 쳐다봤다.

“원하면 너도 와서 딸기 따.

요한나가 말했다.

“수잔네 아빠는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엘리자가 뒤돌아 모자에 가려졌던 얼굴을 들었다. 캐롤린은 순간 멍칫 했다. 잠

시 동안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캐롤린은 획 뒤돌아서더니 여전히 꼼짝 않고 웅크려 앉아있는 여자아이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졌다.

요한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쩔 저럴 수가 있어! 엘리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는 캐롤린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막아섰다.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요한나는 손을 뻗어 엘리자를 자기 옆으로 잡아 당겨 엘리자에게 팔짱을 꼈다.

“내 친구 엘리자 잭슨이야.”

캐롤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번 만큼은 자신에게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 었다. 캐롤린의 입술이 일자로 꼭 다물어졌다.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울타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바람에 끈이 달린 보닛이 목 뒤쪽으로 툭 떨어져 내려왔다.

요한나는 엘리자를 향해 뒤돌아섰다.

“미안해.”

엘리자는 요한나의 말을 듣지 못했다. 엘리자는 팔짱이 끼진 팔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박스에 딸기를 가득 채운 두 소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 때문에 그 애가 네게 못되게 굴겠지?”

요한나는 캐롤린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화가 나도 참으면서 캐롤린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던가?

“상관없어.”

요한나는 자기가 한 말에 놀랐다.

두 소녀가 현관 입구에 앉아 딸기 꼭지를 다듬고 있는데 마차를 탄 탐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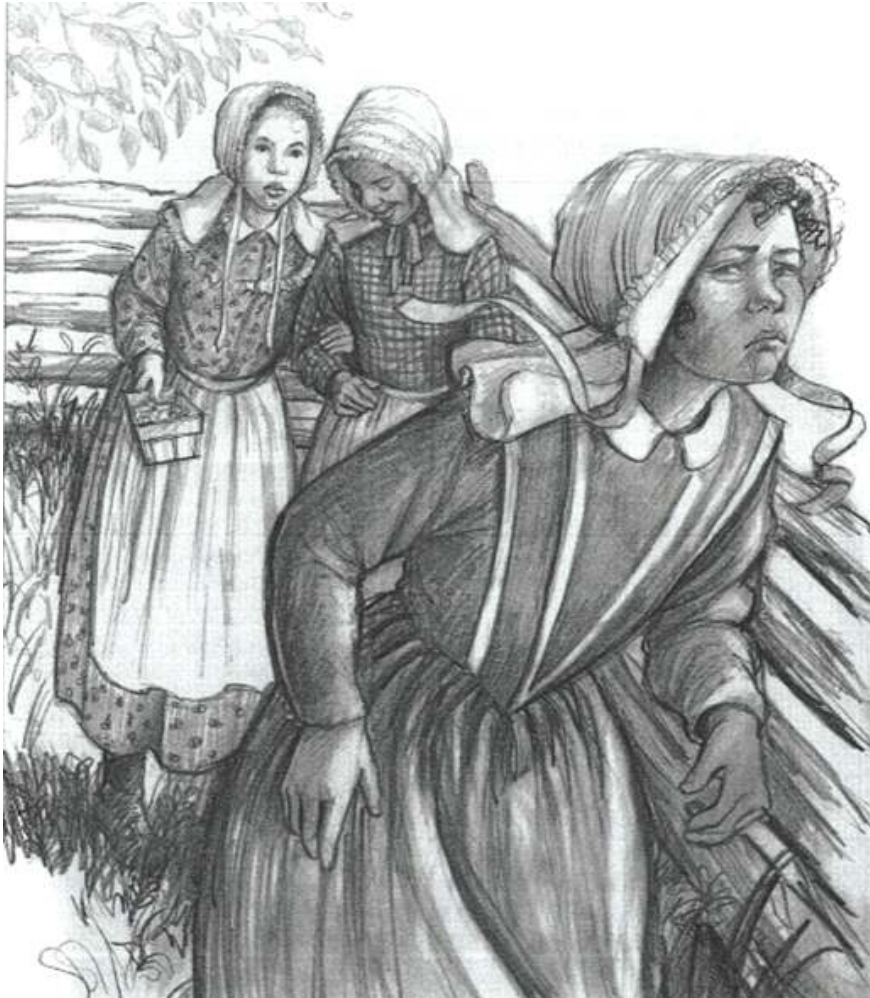
딸기 바구니를 잡고 있던 엘리자의 손이 굳어졌다. 요한나를 한 번 쳐다보고 나서 치마를 매만지며 일어섰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가보는 게 좋겠어.”

오빠가 마구간 문 밖으로 나왔다.

“무슨 소식 들었어?”

요한나가 소리쳤다.



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장에 묶여 있던 가방 하나를 풀어 엘리자에게 건넸다. 엘리자는 벤을 한 번 쳐다보고는 가방 위쪽을 열었다.

옥수수 껍질로 땅아 만든 머리를 양 갈래로 한 작은 인형이 가방 안에서 나왔다. 파란색 옥양목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옷이 입혀져 있었다.

“내 인형이야!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인형 말이야.”

인형을 가슴에 끌어안은 엘리자는 뒤돌아 탐을 바라봤다.

탐은 헛기침을 하더니 활짝 웃었다.

“네 엄마는 토론토에 계셔.”

탐이 말했다.

“너를 기다리면서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대.”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와 벤은 24시간동안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다. 남매는

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몰랐고, 요한나의 가족은 두 아이가 혹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예추적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기차가 가장 빠를 거야.”

요한나의 아빠가 말했다.

“게다가 델하우지 항구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노예추적자들이 있을지도 모르지. 아브람씨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큰 아들을 시켜 너희들과 함께 가라고 하겠다는구나.”

“기차라고요?”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다.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 없어요.”

“땅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었겠지.”

요한나가 엘리자에게 말했고 둘은 함께 웃었다.

엘리자의 엄마는 다락에서 작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와서 읽기책과 쓰기교본, 그리고 석판을 가방 아래에 놓고, 벤이 갈아입을 옷을 그 위에 넣은 후, 파란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맨 위에 정성스럽게 개어 넣었다. 그러는 동안 엘리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기차에 올라타라, 꼬마야. 기차에 올라타라. 자리는 얼마든지 있단다.”

요한나는 엘리자가 떠나는 걸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엘리자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다. 하지만 엘리자도 나처럼 나를 그리워할까?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 어느새 기차 플랫폼에서 엘리자와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헤어졌구나.”

엘리자와 이별한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요한나는 한숨을 쉬며 이층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엘리자를 처음 봤던 그 날처럼 재봉틀이 있는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요한나는 방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었다.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중국인형을 본 요한나는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인형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위에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옥양목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옥수수껍질로 만든 인형이 파란 옷을 입은 중국인형과 나란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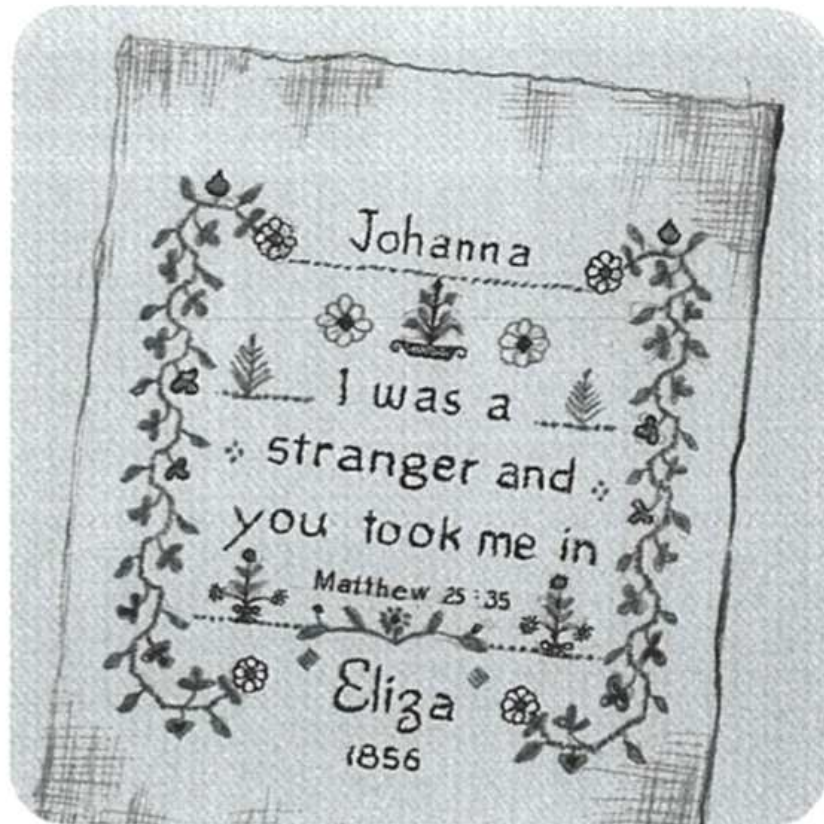


## 6개월 후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소포가 도착했다. 끈을 풀어 소포를 열어보았다. 네모 반듯하게 접은 리넨 밑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 요한나가 리넨을 꺼내는데 리넨이 펼쳐졌고, 그 안쪽에 작은 십자수가 두 줄로 놓여 있었다. 엘리자가 토론토로 가는 기차에서 본 나이가라반도를 따라 핀 분홍색 장미를 십자수로 놓은 것이었다. 두 줄짜리 장미 십자수는 두 개의 이름을 잇고 있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읽는데 눈물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져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편지는 ‘소중한 내 친구에게’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 구출

노예추적자가 레아를 잡아가자 **지하철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그 지역의 모든 요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요원들은 사방팔방을 샅샅이 뒤져 숲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두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레아를 나무에 묶어두고 그녀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도** 요원들은 어둠을 틈타 그녀를 구출했다.

요원들은 레아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나서 새롭게 나온 전신기로 아브람씨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난당한 검정색 여행가방 발견. 첫 배로 돌려보낼 때 까지 기다리고 있기 바람. 소식을 계속 전하겠음.*



이 메시지는 아브람에게 레아가 구출되었지만 전처럼 마차에 실은 짐들 사이에 숨어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로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브람은 강의 캐나다 쪽에서 그녀를 언제 만나야하는지를 알려줄 메시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미국의 법은 노예 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노예폐지론자가 노예를 구출하려면 기습이나 잠행을 해야 했다. **지하철도**요원들은 노예추적자가 도망치는 노예를 잡으면 주인에게 전보를 치고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 노예를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 장소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예폐지론자들은 구출작전을 며칠 동안 실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패트릭 스니드라고 불리는 도망노예가 구출될 수 있었다. 그는 캐나다로 도망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의 미국 쪽에 위치한 호텔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의 전 주인은 그 지역 보안관에게 전보를 보내 그를 체포하라고 했다.

다른 웨이터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보안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요원들이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서 강을 건너 캐나다로 데려갔다.

패트릭 스니드는 운이 좋았다. 노예들은 대부분 주인에게로 보내졌고, 화가 난 주인들은 그들의 삶을 이전 보다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 옥수수인형



엘리자는 요한나에게 옥수수껍질로 만든 인형을 주고 갔는데, 옥수수껍질은 레아처럼 노예 신분인 엄마들이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료들 중에 하나였다. 노예들은 옥수수대나 짚, 잔가지, 견과류, 말린 사과 등을 자투리 천으로 싸서 인형을 만들기도 했다. 엘리자의 인형처럼 옥수수대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보자.

-재료-

옥수수껍질 10~15개 (옥수수대에서 뜯어내거나 공예점에서 구입)

가위

신문지

미온수 1L

글리세린 10mL

수건 1장

10cm 파이프 클리너 2개

2cm 둥근 스티로폼 (또는 테이프로 감싼 종이 뭉치)

두꺼운 실

부직포용 마커

천

시침핀

1. 옥수수대에서 뜯어낸 껍질이 평평하게 퍼지도록 아랫부분을 잘 다듬는다. 신문지 사이에 껍질을 넣어 약 일주일 동안 말린다. 옥수수껍질을 공예점에서 사온 경우 2단계부터 시작한다.



- 옥수수껍질을 글리세린을 섞은 미온수에 하룻밤 동안 담가둔다. 수건으로 옥수수껍질에 묻은 물기를 닦아낸다.



- 둥근 스티로폼에 파이프 클리너를 끼운다. 13cm 옥수수 껍질 한 장을 스티로폼 위에 올려놓는다. 두 번째 옥수수 껍질을 먼저 올려놓은 껍질과 직각이 되게 올린 후 아래쪽으로 접는다. 옥수수껍질로 스티로폼을 감싸 머리 모양을 만든다. 목둘레에 실을 여러 번 감아 단단히 묶는다.
- 옥수수껍질을 2.5cm x 10cm 크기로 자른다. 옥수수껍질 위에 파이프 클리너를 세로로 올려놓고 단단하게 만든다. 양쪽 끝을 실로 묶어 손목을 만든다.
- 머리 아래에 몸통과 직각이 되도록 팔을 놓는다. 팔 위쪽과 아래쪽을 8자 모양으로 실을 여러 번 감은 후 단단히 묶는다.
- 옥수수껍질을 두 개를 4cm x 13cm 크기로 자른다. 세로로 반을 접는다. 두 개의 껍질로 어깨를 각각 감싸고 허리에서 서로 교차시킨다. 허리에 실을 여러 번 감아 단단히 묶는다.



7. 팔을 구부려 머리까지 올린다. 대여섯 개의 옥수수껍질을 넓은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서로 포개어 실로 허리에 감는다. 치마모양이 되도록 포개진 옥수수껍질을 한 번에 한 개씩 아래쪽으로 접어 내린다. 아랫부분을 잘 다듬어 길이를 일정하게 한다. 팔을 아래로 내린다.

8. 마커를 사용해서 눈, 코, 입을 그린다.

9. 천을 가로 세로가 7.5cm인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스카프를 만든다. 스카프 양쪽 끝을 턱 아래에서 교차시키고 목 뒤로 넘겨 묶는다. 천을 2.5cm x 4cm 크기로 잘라 앞치마를 만든다.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허리부분에 핀으로 고정한다.



## 일자리

토론토에 도착한 레아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레아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 많았다. 그녀는 전문 재봉사였으며, 요리와 세탁 솜씨가 좋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과 유럽에서 온 이주자들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이주민들은 얼마 안 되는 일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였다. 그러나 잔혹한 주인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낯선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았던 그들이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자들은 세탁이나 수선하는 일을 하거나 저택에서 하인으로 일했다. 기술이 많지 않은 남자들은 호텔에서 일을 했다. 철로를 놓거나 짐을 나르는 등 새로운 증기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자기 사업을 하는 해방노예들도 있었다. 캐리와 리차드는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얼음가게를 열었는데 겨울에 저수지에서 잘라온 얼음에 톱밥을 덮어 저장해 두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도시와 인근 지역으로 마차를 타고 매일 얼음을 배달했다.

또 다른 해방노예 손턴 블랙번은 토론토 땅이 넓고 질퍽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말과 마차를 사서 처음으로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게를 개업하거나 노예였을 때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발사, 재봉사 혹은 제화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방노예들이 모두 도시로 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토론토의 북부나 서부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땅을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었다. 아직도 채텀지역에는 해방노예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 자유를 향한 배움



벤은 대농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와 동생만큼 기술을 배울 수는 없었으나 배움에 열의를 갖고 있었다. 다른 도망 노예들처럼 벤은 읽기와 쓰기 학습이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용적인 기술도 배우고 싶었던 그는 채텀 근처 던에서 학교를 다녔다.

도망노예 요시아 헨슨은 해방노예들에게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줄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망노예들의安危를 걱정하는 웨이커교도와 유니테리언교도들과 함께 학교와 제재소 그리고 방앗간을 지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학생들은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 던 스쿨은 1844년에 설립되어 1868년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장로교회 목사 윌리엄 킹이 채텀 근처에 세운 엘진 세틀먼트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둔 학교였다. 킹 목사는 해방 노예들에게 토지와 학교,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600헥타르(36,000,000m<sup>2</sup>)의 토지를 매입해서 20헥타르(200,000m<sup>2</sup>)씩 분할했다. 해방 노예들은 오두막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겠다고 동의하면 싼 값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철도에서 일을 해서 12달러 50센트씩 나누어 갖도록 하였다.

킹 목사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교회와 학교가 있는 건물을 관리했다. 그 후 15년 동안 학교에 다니는 흑인과 백인 학생의 수는 동일했다. 1865년까지 700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에 입학 했으면,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학에 입학했고,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었다. 후에 이 학교는 다른 공립학교들과 통합되었다.

## 매리 앤 샤프드



어떤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이자 기자였던 매리 앤 샤프드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았다.

매리 앤은 엘라웨어의 해방노예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노예제도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북쪽으로 탈출하는 많은 노예들을 도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고 배웠다.

1850년 매리 앤 샤프드는 탈출노예들을 위하여 캐나다 웨스트의

원저에 학교를 지었다. 던에 세워진 학교와는 달리 그녀가 세운 학교는 통합교육을 했다.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을 함께 교육해야만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사는 백인 중에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흑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자신의 아이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았다. 매리 앤은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프로빈셜 프리먼이라는 신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기사를 써야했기 때문에 체력이 모두 바닥나 버린 그녀는 2년 만에 학교 문을 닫아야 했다. 신문사는 살아남아 토론토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그녀의 생각을 지지했다. 프로빈셜 프리먼은 약 6년간 발행되었으며 강력하게 흑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에 매리 앤은 북부군 흑인 병사 모집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난 후 워싱턴으로 이사 간 그녀는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하워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변호사로서 그녀는 여성의 투표권 보장과 같은 대의를 위하여 투쟁했다. 이 위대한 여성은 두 가지 업적을 최초로 이루어 냈다. 신문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북미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으며, 미국 내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딴 최초의 여성이었다.

## 모두를 위한 자유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모든 노예의 자유를 선언하는 노예해방령에 서명했다. 마침내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 사는 도망노예들이 노예추적자들의 낚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소식에 캐나다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던 많은 노예들이 동요했다. 대부분은 남부에 친척과 친구를 남겨두고 왔다. 주인들의 채찍질과 노예추적자들이 데리고 다니던 개들에게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향을 잊을 수 없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는 부당한 대우와 가혹한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캐나다에 정착했다. 그들은 살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갔다.

그들은 캐나다에 뿌리를 내렸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새나라는 이제 그들의 나라가 되었다. 거의 150년이 지난 지금 해방노예들의 후손들은 오랜 시간 조국 건설에 이바지한 역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5세대, 6세대 캐나다인이다.







